



성도의 빛

1986년 4-5월호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을 읽읍시다.”

International Magazine © 198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메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고 문:
칼로스 이 애시, 랭스 디 피네가,
조지 피리, 제임스 엠 패러모어

통 권: 제243호, 제22권 제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1986년 4월 1일(격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김 영 철
번 역: 한국 번역 출판부 ☎ 738-6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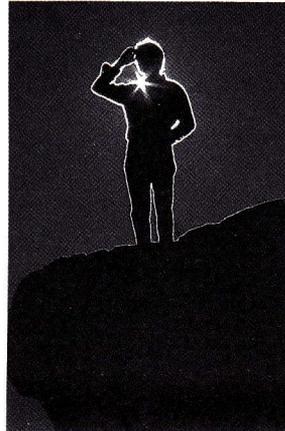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49KO PRINTED IN
KOREA 4-5/8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수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38



41

차 례

표지설명-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 1 나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7 사업을 행할 준비가 되었음 니나 헐
- 10 자신의 재능을 사업에 바침 버논 프루터 및 버다 프루터
- 12 제일 먼저 십일조를 메테 한센 로
- 14 질의 응답
- 20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로버트 엠 윌키스
- 24 복음 전도에 따른 여러 가지 축복 칼로스 이 애시 장로
- 32 새로운 찬송가-“신앙으로 나아가”
- 33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패티 라라
- 36 구조의 노래 게린 로렌 맥칼디스터
- 37 원목의 권능 빅터 더블류 매튜
- 38 손을 뻗쳐 올라가십시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40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럴딘 피코트 콜딩
- 43 심심풀이-동그라미 맞추기 더그 로이
- 44 경전에 나오는 거인들-침례 요한 주디 스테판 스미스
- 46 피리부는 사람 조이스 디 베일리
- 49 가족 야간 발견 수잔 에스 닌
- 50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57 교회 및 지역 소식
- 60 지역 회장단 메시지

나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스위스 성전

나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상당히 고령이셨을 때 교회 행정 본부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이 탄 차가 교회 행정 본부 건물에 이르자, 운전 기사가 다른 형제를 불러 그랜트 대관장을 부축하게 하여 양팔을 한 사람씩 붙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막 건물로 들어오려 할 때 그랜트 대관장이 문가로 다가

오셨습니다. 그는 그를 부축하고 있는 두 형제들에게 “저기 오는 사람이 벤슨 형제가 아닌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리 와. 이리 와봐, 벤슨 형제.”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랜트 대관장에게 다가가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브리감 영 대관장이 네 증조

할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수단을 쓴 것에 대하여 말해 준 적이 있었는가?”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관장님. 나는 브리감 영 대관장이 누구에게든 수단을 쓴 적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럴테지.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실상 두 형제님들이 그랜트 대관장의 몸무게를 전적으로 떠

바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다, 지금 여기서 해 주마. 이 형제들은 내가 네게 말해주는 동안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단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이온스 은행이 있는 곳을 알지? 메인가와 사우스 템플 가의 모퉁이에 있는 것 말이다.”

“예.”하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증조부께서 브리감 영 대관장의 집(그것은 물론 지금도 남아 있는 라이온 하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을 제외하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가장 좋은 집을 그 모퉁이에 지으셨지. 그가 그 집을 다 지어놓고 보니 집 양쪽에 포치가 달린 이층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집이 되었다. 집 주위에는 흰 판자로 울타리가 쳐지고 과일 나무와 관상수가 심겨지고, 뜰에는 조그만 내도 흐르고 있었지. 그가 통나무 집에서 그의 가족을 이사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던 어느 날 영 대관장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단다. ‘벤슨 형제님, 우리는 형제님이 유타 북부에 있는 캐쉬 벨리로 가서서 그 지역을 개척하고 성도들을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은 다니엘 에이치 웰즈 형제님에게 파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네,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에이치 웰즈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였지. 좀 속 보이는 수가 아니었겠나? 자 형제들 갑시다.”

나는 벤슨가의 종친회에 여러 해 참석했으나 그 이야기는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역사과에서 그것을 입증해야 했으며, 그들은 그 사실이 그랜트 대관장이 말해 준 대로였다는 것을 내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집의 사진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 대관장의 소위 “종지 않은 수단”에 대하여 나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벤슨가는 캐쉬 벨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캐쉬 벨리를 사랑하며 그 지역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로간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전은 참으로 캐쉬 벨리에 밝은 햇불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교육받는다면, 이 성스러운 건물은 특별한 의미의 상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족이 영원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성전을 가르키며 “바로 저 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했단다.”하고 말해 주는 광경은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 결혼의 이상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나의 추억은 아주 어린 소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다호주의 휘트니에서 가족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모여들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했나”(찬송가 119장)를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종이를 다리미판 위에 깔고 이마에 구슬 땀을 흘리시며 흰 옷의

통가 성전



긴 끈을 다리미질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내가 무얼하시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야 이진 성전복이란다. 네 아버지와 함께 로간 성전에 갈지야.”

그러고는 구식의 평평한 다리미를 난로 위에 올려 놓고, 의자를 내 곁으로 가까이 끌고 오시며 성전 사업에 대하여 즉, 성전에 갈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수행되는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도 이러한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은 그리운 오네이다 스테이크의 삼백 명의 회원이 있는 조그만 시골 와드에 속한 우리 시골 집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억은 주님의 집에서 영이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자녀와 손자들, 곧 우리 어머니의 손자와 증손자들의 결혼식을 치를 때마다 새롭게 되살아났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특별한 추억거리로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새겨 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는 때때로 중대한 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의 인도하심으로 때로 순수한 지식이 우리에게 넘쳐 흐릅니다. 성전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곳입니다. 나는 어려운 문제로 시달림을 받을 때, 주님의 집을 찾아 마음속으로 해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해답을 받습니다.

여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내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며, 성전 의식은 성스러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스러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성전에 관하여 말하기를 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게 되고, 아니면 성전에 갈 때라도 그들이 맺은 성약이나 성임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임하게 됩니다.

나는 합당한 이해의 뒷받침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데 해아릴 수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구한 것과 같은 신권의 축복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 지상에 세우셨을 때, 그들에게 그의 면전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을 내심 뜻하시고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타락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구세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로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들어선다 함은 오늘날에는 주님의 집에서만 충만하게 받게 되는 온전한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온전히 응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도 없는 자의 반차를 쫓는 자니라.”(교성 6:67)

아담이 사망하기 삼년 전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셋과 손자 에노스를 데리고 또한 직계 후손인 다른 대제사들과 많은 의로운 후손을 동행하여 아담 온다이가 아만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이들 의로운 후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회중이 일어나 아담을 축복하고 그를 미가엘이요, 왕자요, 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친히 아담을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왕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노구를 이끌고 일어나, 예언의 영이 가득 차 “마지막 세대까지 그 자손에게 일어날 일을 다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3-56절)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아담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그들을 이끌기” 원하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55페이지)

교리와 성약 107편에는 아담이 어떻게 그 자신과 그의 의로운 후손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 수 있었는가를 말해 주는 훌륭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신권의 반차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하여 내려가도록 확인되었나니, 약속을 받은 선택된 사람의 정통 자손에게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니라.

“이 반차는 아담 시대에 제정되어 이같이 그 자손에게 전해 내려 갔느니라...그의 후손은 주의 선택된 백성이 되며 이 세상 끝까지 보호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받았더라. (교성 107:40-42)

아담은 어떻게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었습니까?

그 답은 아담과 그의 후손이



타히티 성전

하나님의 신권의 반차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축복을 받았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신권의 반차는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의 축복의 반차로 언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차는 한편 (아담과 이브가 그러했듯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영원을 위해 인봉되고, 후손을 갖고 이 지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현대 계시에서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그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하다면, 그들은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약은 주님의 집에 들어감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 반차에 따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위대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녹도 이 본보기에 따라 그 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와 그의 아들 셈도 홍수 이후에 그와 같은 본보기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인 아브라함은 “의를 쫓기에 더욱 큰 자가 되고”라는 말로 이러한 축복을 구했습니다.

신권의 반차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능은 조상으로부터 내게 부여된 것이니,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왔고 때가 시작될 때부터...내려온 장자의 권능이라. 첫 사람인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부여되었다가 선조를 통하여 내게 이르렀느니라.”(아브라함서 1:2-3)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후손에 대하여 선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나를 신권자로 임명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노라.”(아브라함서 1:4)

모세는 이 신권의 반차를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힘썼으나, “이스라엘 자녀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저들에게 불분뿔 하심으로 진노하신 주께서 맹세하시되, 저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주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느니라. 그 안식은 주의 영광의 증만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세를 저들 가운데서 데려가셨고 성신권도 가져 가셨느니라. (교성 84 : 23-25)

우리는 요셉 스미스 영감역을 통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신권을 취해 가리니 그러므로 거룩한 반차와 그의 의식이라.”(영감역 출애굽기 34 : 1)

이 대신권과 그에 따른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러한 구절을 인용하는 목적은 이 신권의 반차는 대초로부터 지상에 있었으며, 다만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살게 될 것입니다. (교성 84 : 22)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의 시대에는 단지 특정한 예언자들만이 대신권의 권리를 갖고서 인간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인봉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인봉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뭄에 시달리는 땅을 구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면 그는 신권의 열쇠를 지닌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그 후에 변형되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들리워 갔습니다.

그는 변형된 존재로서 신권의 열쇠를 구세주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 신권의 열쇠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큰 배도로 인해 교회가 파멸되어 신권의 축복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새로운 경륜의

율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권에 기록된 대로 1823년에 주어진 첫번째 계시에서 신권에 관한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뜻깊은 것입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교성 2 : 1-3)

어떠한 신권을 엘리야는 나타내었습니까?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 열쇠를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회복시켰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신권의 의식들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169페이지) 다시 말하면 인봉 권능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바로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기는 했으나, 이 신권의 반차가 지상에서 다시 수행될 수 있는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도록 성도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는 저가 와서...잃었던 것 곧... 완전한 신권을 또다시 회복할 곳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음이라.”(교성 124 : 28)

예언자 요셉은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증만하신 신권을 얻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얻으신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란 모든 계명을

성전에 가서 여러분의 선조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신권의 가장 높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쌍파울로 성전

지키고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을 순종하는 것이다.”(가르침, 308페이지)

그리하여 초기 성도들의 큰 희생으로 오하이오에 커틀랜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1836년 4월 3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내려 오신 다른 세 분이 이 거룩한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이 엘리야로,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 돌리키게 하여 온 땅이 저주받지 않게 하는 권능의 열쇠를 맡긴 자니라.”(교성 27:9)

엘리야는 인봉 권능을 가져 왔습니다. 그 권능은 남자와 여자를 인봉시키고, 그들의 후손을 끝없이 그들에게 인봉시켜, 결국 아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선조들에게 인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계시한 권능이요, 반차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고대의 축복사에게 주신 똑같은 반차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받은 경륜의 시대의 열쇠는 너희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요, 참으로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려온 것이니라.”(교성 112:32)

그 후의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영광에는 세 하늘 곧 세 가지 등급이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만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

“저가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없으려니와 이는 저의 왕국의 마지막이니 저는 증진할 수 없느니라.”(교성 131:1-4)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축복을 받고 결혼 성약을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시어 시조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된 그와 같은 신권의 반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반차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반차를 받게 하며,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가 “저의 승영에 들어가 자기의 보좌에 앉” (교성 132:29)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약속은 또한 너희 것이니,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속하였…음이라.”(교성 132:31)

그런 까닭으로 나는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신권의 반차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집에 감으로써 아브라함이 했듯이 선조의 축복을 구함으로써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성전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의 선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보고서 살 수 있는 자도 없느니라.”(교성 84:22)

우리 아버지의 집은 질서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서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다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신권의 반차에 우리도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현대에 계시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신권에 “정당한 후손”이기 때문입니다.(교성 86:8-11 참조)

이제 주님의 집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 주님의 집에 속하는 의식을 수행하면,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한 선조에게 돌리게 하는 엘리야의 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선조에게

돌리고 선조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교성 84:19 참조) 여러분은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교성 84:20)

여러분은 사망하여 장막의 저편으로 간 분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수 있”(교성 138:34)도록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축복과 성전에 자주 참여하는 축복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 우리 선조들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전에 감으로써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언자 엘리야에 의하여 계시된 모든 축복을 받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가서 여러분의 선조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신권의 가장 높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성전에 감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질 큰 축복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이 참됨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간증드리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선조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현대의 이스라엘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984년 5월, 로간(유타주) 성전에서 하신 말씀에서 받쳐

사업을 행할 준비가 되었음

나나 헐

모든 재능과 경험과 숨겨진 능력이 선교 사업에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한 어느 부부 선교사의 이야기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품어 온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찍 결혼한 까닭에 자녀를 키우는 동안은 그 꿈을 제쳐놓고 남편과 내가 나중에 부름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이 44살에 마비 증세로 말하거나 쓰거나 읽는 능력을 모두 상실하고 좌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평생 동안의 소망이 무참히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신권의 권세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회복했으나 감독이 12년 후 선교사 접견을 하려고 우리를 불렀을 때 그는 여전히 여러 면에서 장애 상태에 있었습니다. 중풍으로 인하여 남편은 말을 똑바로 할 수 없었으므로, 가족 이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우리의 음식 축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왼팔은 절단되었으며 그의 오른편 다리는 부어서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면 심장마비 증세가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재정 수입도 적었으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적고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주님에게 자신이 필요하거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 부장은 이 신청서를 교회 본부로 보내는 데 자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과에서는 “서류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총관리 역원들이 결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충고했습니다. 나는 왕국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알맞는 장소가 있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주일 후,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나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와드에서 우리가 작별 인사 말씀을 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가 짧은 연설을 하도록 도와 주려 했으나 그는 암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찬식 몇 시간 전에 그는 특별한 신권 축복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성찬식에서 약



10분간 무난하게 말씀을 했으며, 말씀이 끝나자 감독은 회중에게 그들이 방금 기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숙소에서 맑은 첫날 밤에 무릎꿇고 기도드리며 두번째 기적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12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가족 기도를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이 60명가량 되는 어떤 작은 지부에 배치되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비활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첫 주일을 맞이하였을 때 신권회 모임에는 남편과 지부장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주일학교와 성찬식에는 14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시 성찬을 축복하고 개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사뭇 감격스러웠습니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좀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새 임지로 갔습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과연 귀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실까? 그러나 일단 그곳에 도착하자, 인간은 어느 곳에 가든지 거의 다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부모로서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많은 공통점을 안겨 준다는 것을 깨닫고는, 우리의 불안을 가라앉혔으며, 제대로 적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부에 기록이 있는 회원을 전부 다 찾아보고 그들에게 활동화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려는 일부터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로 표시나 지명도 없는 시골에서 사방으로 퍼져서 살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와 전혀 접촉이 없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접촉했던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불과 몇 사람만을 집회에 나오게 할 수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지부장은 실망해서 그 지부를 폐쇄할 것을 권의했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활동이었던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되고, 그 지역에서는 복음 전파가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지부 운영을 지도하는 감독이 모임을 소집해서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부를 폐쇄하든지 남편을 지부장으로 지지하여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는 방법이었습니다. 남편 벤이 지지받고 성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길에는 온갖 장애물이 가득 차 있었으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만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움과 인도를 주시도록 완전히 그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총동원하여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은 주님에게 힘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으며, 우리가 생활하고 주일이면 분반 공과를 하던 두 개의 방 옆에 있는 조용한 예배당에서 자주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예배당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을 받은 것 같소. 이 지부는 젊은이를 통하여 커질 것이오.”

바로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침례준 만13세 소녀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소녀는 비활동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에게 보내어졌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우리가 뒷마당에 설치한 활동 장소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과를 마련했습니다. 선교사 토론을 공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우리에게 새 개종자 가족을 보내 주셨는데, 그 지역으로 이사온 세 자녀를 둔 활동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초등학교 어린이 한 사람과 상호 향상회 회원인 청소년이 두 사람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좌 한 사람(나는 그때 상호부조회 회장이었습니다.)과 남편에게는 그를 도울 보좌가 한 사람 생겼습니다. 그 가족의 16살된 아들은 복음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례받지

않았으나, 젊은 장로들이 그에게 노력을 기울여 그도 곧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찬 축복할 제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계보반을 만들었을 때, 특히 취미로 계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마을의 비회원 단체를 위하여 반을 개설한 우리는 교사를 찾는 일을 도와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른 가족을 보내 주셨으니, 그 부인은 계보 전문가였습니다. 그 자매는 매주 화요일 밤에 공과를 가르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자매는 또 피아노도 잘 치고 미술과 공예 전문가였으며 그것은 지부로서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주일학교 회장이 되었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도 한 사람 더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하여 교회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된 어떤 젊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 분반 교사를 하고 있었으며 물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선교사들을 그들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어 우리가 다른 가족을 가르치는 동안 그들이 그 젊은 부부에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게 했다. 두 가족이 모두 활동적인 지부 회원이 되어 우리에게 주일학교 교사, 지부 서기, 상호부조회 교사, 초등학교 어린이가 한 사람씩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찾는 일에서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들은 어떤 말일성도 가정을 여러 달 동안 찾아다니며 그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갑자기 영감을 받아 그 마을 수도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름의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알지요.”라고 말하며 그 “잃어버린” 회원이 일하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가 몇 년 전에 교회에 가입했으나 지난 4년 동안 비활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우리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우리가
 뒷마당에 설치한
 활동 장소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과를 마련했습니다.
 그 지부는
 이내 성장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세 자녀들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하자 그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그가 술, 담배를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을 방문하고 여덟 살과 열 세살된 자녀가 교회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도 얼마 안되어 술, 담배를 끊었으며, 그의 가족은 모든 집회에 충실하게 참석했습니다. 그의 두 자녀는 침례받았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장로로 성임되었으며 구도자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동안 그 작은 지부는 커졌습니다. 그해 연말이 되었을 때, 모든 보조 조직이 충실히 조직되었으며, 주일학교와 성찬식 참석은 평균 5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음해 5월에는 건물이 차고 넘쳐서 새로운 집회 장소와 예배당을 지을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침례받는 수가 더 많아지고 새로운 가족이 더 많이 그 지역으로 이사왔으며, 더 많은 회원이 활동화되었습니다. 6월에는 그 지부가 독립 지부가 되었으며 예배당을 지을 땅이 선정되었습니다. 수 개월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내 주신 그 사람이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2개월 더 머문 후 새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큰 기쁨을 얻었으며, 그들 형제 자매와

어린이들은 마치 우리 가족과 같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 받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화와 편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받은 특별한 축복은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든지 온갖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알콜 중독이 된 여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혼초에 교회에 가입했으며, 주일학교 교사로서 활동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를 찾았을 때는 작은 방 두 개밖에 없는 이동식 트레일러 주택에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입원시킨 후 그 트레일러를 청소하는 일을 떠맡았는데 그곳에서 그녀와 열 한 살, 열 다섯 살난 두 아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빈 위스키 병과 맥주 깡통과 더러운 옷이 널부러진 사이에서 접시를 닦고 있자니 뜨거운 태양이 양철 지붕 위에 내려쬐어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바퀴 벌레가 다리로 기어오르고, 악취가 견딜 수 없이 스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쩔지 그러한 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구가 수없이 반복해서 내 마음에 메아리쳤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우리는 그 후 10개월 동안 이 여인을 위하여 일했으며, 두 아들은 교회 모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그 자매는 나를 끌어안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두번째 임지에서 다시 그 지부의 수많은 비활동 가족을 담당해서 일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4개월 동안에 이들 가족 중에서 약 65가정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몇 가족은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약 10가정밖에

활동화시킬 수 없었으나 친구를 많이 사귀었으며,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침내 썩이 터져 자랄 씨앗을 그곳에 뿌려 놓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날 밤에 세 사람이 침례받음으로써 우리 선교 사업은 마지막을 훌륭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만이 회원인 가족의 자녀였으며,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선교 사업에서도 가장 훌륭한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공과를 할 때면 그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경이심에 가득 차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귀를 기울였으며, 나는 마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다시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침례식이 끝나자 눈물과 포옹과 작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의 남편이나 나와 같이 약하고 하찮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스러운 일입니다. 남편은 자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거의 다 아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장애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에 필요한 매우 특별한 재능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내심과 오래 참음, 끈기, 희생과 관대함, 신앙과 비참하고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에게 손길을 내어미는 능력으로 주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었으며, 우리가 선교 사업의 어려운 기간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업을 돌이켜 보면 중요하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의 경험은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평범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의 일부로 생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소년단, 상호 향상회,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청소년과 함께 일하면서 경험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휘하면서 경험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숙련공으로서의 능력도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가 어린이를 몹시 사랑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으므로 어린이들은 그를 사랑하고 이상처럼 따랐습니다.

나도 남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것은 거의 모두 내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 해야 할 일의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쌓은 자그마한 지혜, 음악과 연극의 경험, 비서직의 업무, 간호, 심리학 교육받은 것, 정신 병원에서 일한 것, 가사 기술, 대공황 때 몇 년간 경험한 것, 세미나리에서 일한 것, 대가족을 키우면서 경험한 것,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책 등이 모두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숨겨진 재능과 능력을 주님의 영이 벗겨 내어 사용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감탄할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선교 지역에서 보낸 18개월은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우리의 기도—우리 자신의 생활 및 우리가 영향을 주려고 애쓴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드린 것에 대한 응답을 다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났 때마다 그리고 매일 매시간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친절하고 사랑에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누린 사랑과 경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장로들과 훌륭한 관계를 지속했던 것도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고양시켜 주고 영감을 주었던 매달 있었던 선교사 지구 대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겁을 내며 선교 사업을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었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할 용의가 있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께서 필요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사업에 바침

버논 프록터 및 버마 프록터

몇몇 부부 선교사의 사례

버 부 선교사들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며 그들의 간증과 지식, 경험 및 지혜는 사실상 교회의 모든 사명에 다 필요하다. 그들은 어디에서 봉사하거나 교회가 강화되고 회원들은 축복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부부가 캐나다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들은 첫 주일 모임에서 자신을 소개했다. 소개하는 동안 그 장로는 부인을 자신의 “41년 동안 사귄 애인”이라고 했다.

그 회중 가운데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부가 몇몇 있었다. 그들은 다음 몇 달 동안에 행복한 결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바꾸도록 영향을 받았다. 그 중 한 사람이 후에 이 부부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 분이 왜 이 선교부로 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곳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만 함으로써 훌륭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온 어떤 부부 선교사는 볼리비아에서 봉사했다. 어떤 작은 인디언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험준한 산길로 1,400미터나 떨어진 샘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다. 매일 그렇게 멀리 물을 나르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으며 심각한 위생 문제도 발생했다.

그 선교사 부부는 그 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올 수도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 장로가 그 공사의 기술 감리를 하며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여러 개의 작업조를 만들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 사회는 바위가 많은 고산

주께서 언제나
손을 내어밀고 계시니,
와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하자.
가족과 자신이
영원히 축복받게 될 것이다.



지대 평원을 가로지르는 도랑을 팠다. 그리고 플라스틱 파이프를 그 도랑에 배관하고 그 우물을 그 마을 중앙에 간단한 수도꼭지와 연결했다. 그것은 그 마을 전체에서 유일한 수도꼭지였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개통식에 참석했다. 비회원들이 교회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자원에 대하여 감사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잊고 그 사업에 헌신한 그들 부부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 선교 사업의 절정입니다."

어떤 부부 선교사는 미국내의 어떤 지부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지부는 너무나 비활동이어서 해체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지역에서는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 장로는 고향에서 라이온즈 클럽(민간 봉사 단체) 회원이었으며, 시 행정관으로 봉사했고, 전문적인 정원사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인은 그 지역 라이온즈 클럽과 친분을 맺었으며, 그 장로는 그 클럽의 정규 모임에서 연설을 하도록 초청받았다. 그는 그들이 누구며 왜 거기에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지부 회원들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건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겠다고 했다. 그 중 한 사람은 15,000명의 정기 구독자가 있는 신문에 선교사에 관한 기사를 썼다. 그들은 텔레비전 인터뷰에 초청받았고, 교회와 계보에 관한 많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그 장로는 원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하여 비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키고, 비회원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약 3천 평의 토지 사용권을 얻어 재배할 준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땅을 배정받았으며, 그는 그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모두 수확을 잘했으며, 그들이 그 지역에서 본 가장 훌륭한 정원이라고 많은 가정에서 선교사들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오늘날 그 지부는 날로 번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그들의 집회소를 갖기 위한 일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어떤 부부는 남태평양의 어떤 섬으로 작은 전자 올겐을 가지고 갔다. 그들은 그것을 집회에서 사용했다. 그 섬에서 그런 악기는 그것밖에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 노래하려고 모여 들었다. 다른 교회 회원들까지도 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기를 위하여 말일성도 모임에 참석했다.

어떤 부부는 통가로 부름받았다. 그 장로는 솜씨좋은 점안사였다. 그는 점안 장비를 갖고 가서 그 지역에서 그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선교사를 위하여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연만한 부부와 연만한 독신 자매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나타내는 이와 비슷한 선교사 경험은 얼마든지 꼽아 볼 수 있다.

선교사로 나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봉사 능력에 관하여 염려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도록 계시에 의하여 부름받게 될 것이다.

어떤 연장자들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 가족이 과연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가를 염려할 수도 있다. 염려할 것 없다. 주께서 언제나 손을 내어밀고 계시니, 와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하자. 가족과 자신이 영원히 축복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도록
계시에 의하여
부름받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십일조를

메테 한센 로

그것에 손을 대자마자
그 원고가 깨끗한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얼 마전에 어떤 친구는 모든 청구서를 다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십일조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의 일상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때로 우리는 끝없이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우리는 대부분이 한 두 번은 중요한 요금을 십일조보다 먼저 내고 십일조는 다음에 어찌면 다음달에 내야겠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몇 년 전의 경험을 통해 나는 십일조를 우선 순위에서 두번째로 두어도 좋을 구실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1978년 봄에 덴마크에서 식자 사업을 벌였다. 갑자기 남의 밑에서 일할 때보다 수입이 두 배가 되었다. 나는 예산을 짜고 사업 장부와 세금 장부를 주의깊게 기재했다. 그리고는 십일조 은행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실은 저축 계정이었으나 그것을 십일조 계정으로 부른 나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내 십일조 계정의 금액이 상당히 되는 데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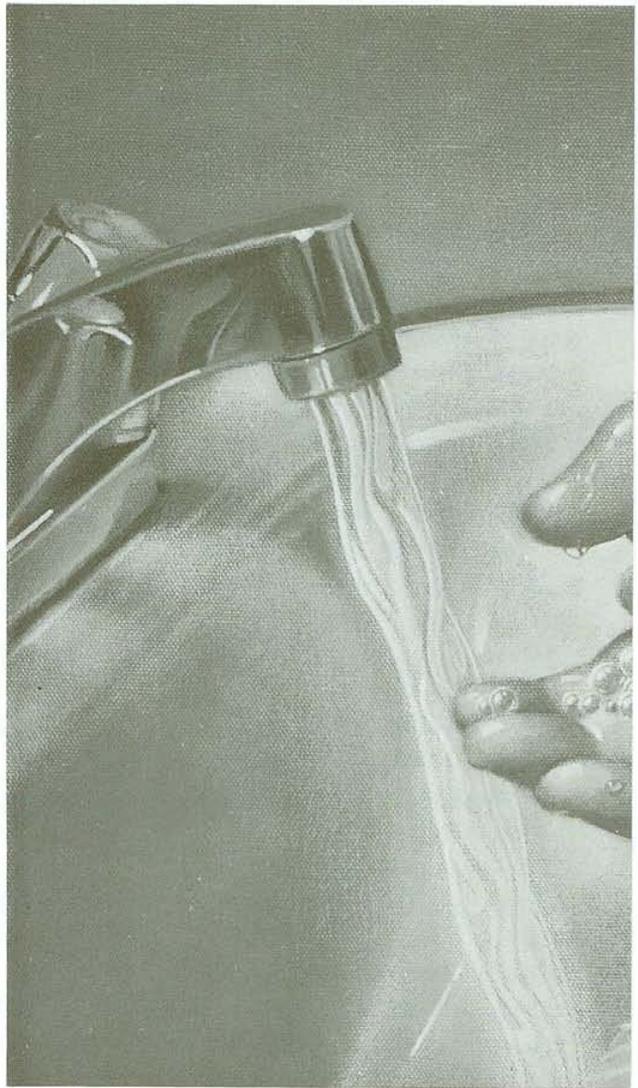
“언젠가는 이 금액을 전부 한 장의 수표로 바꾸어서 감독님에게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계정이 점점 불어나게 되자, 수표로 만들기 어려워졌다. 그뿐 아니라 금액 수를 기워 나가는 데 재마가 붙게 되었다.

6개월간 일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생긴 후, 갑자기 주문이 딱 끊겼다. 주문없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 저축액이 점점 작아짐에 따라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래도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오래 계속되면 언제든 십일조를 차용해서 쓸 수 있어.” 하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어머니에게 내 생각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즉시, “주님에게 빚진 돈에 손대면 안돼.”라고 말씀했다. 어머니는 의지가 강한 분으로서 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어머니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불효하고 거역하는 것같이 생각되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독님에게 십일조를 빨리 갖다 드릴수록 더 좋은 것이다. 오늘 전액을 수표로 만들어서 갖다 드려라.”

나는 월세, 자동차 유지비, 세금 시설 유지비 등이 모두 기한이 되었으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십일조 계정에 있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감독님에게 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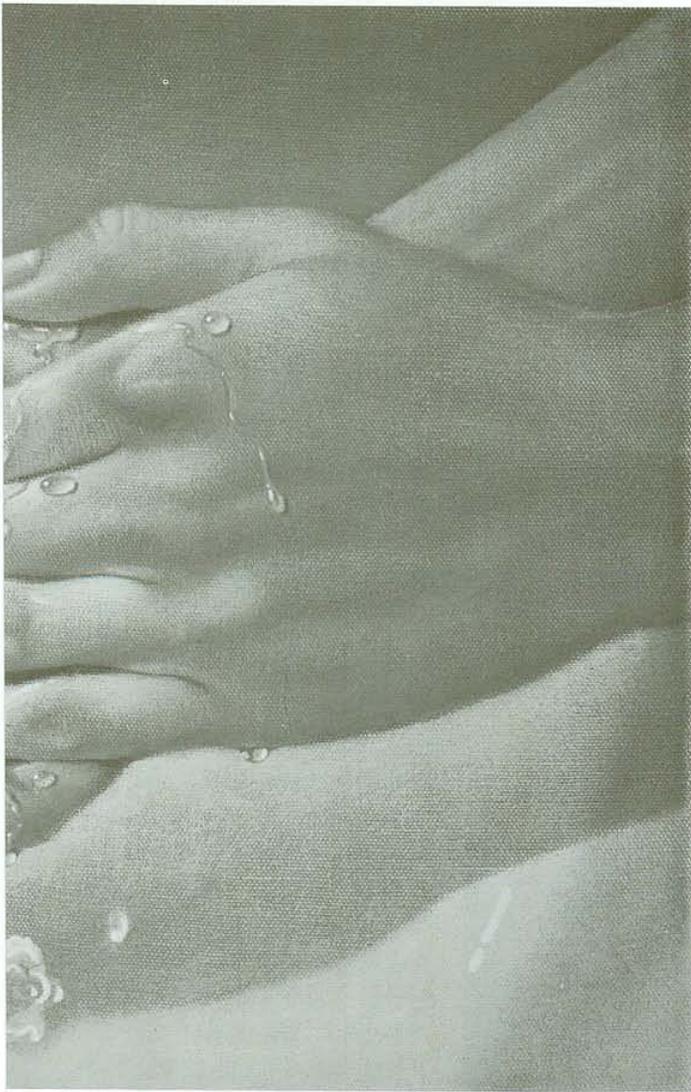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곧장 은행으로 갔다. 내 평생에 그 날만큼 그 예금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내 평생에 그날만큼 그 예금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감독님에게 그 수표를 전해 드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과 가정을 꾸려나갈 것인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했다. “네 큰 딸은 우리와 함께 금식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24시간 동안 금식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금식할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시 금식하자.”고 말씀했다. 우리는 다시 금식했으며, 바로 그 다음 날 우체부가 문을 두드리더니 전혀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온 주문서를 가져 왔는데 다음 한 달 동안 매일 바쁘게 일해야 만큼 큰 주문이었다. 어머니와 두 딸과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 흘렸으며,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렸다.

그러나 그 후 매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그 일을 내 컴퓨터에 입력시키려 할 때마다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시도했으나 그 컴퓨터는 그 코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코드는 내가 이전에 천 번도 넘게



그 책을 뒷장으로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끝에서 둘째 페이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가슴스러운 글이 썩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저자는 자신의 그 모반적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까지 인용했다. 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온 나라의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런 가슴스런 글을 대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울었다.

갑자기 나는 몸이 굳어졌다. 내부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이것을 찍지 말라. 이것을 인쇄한다면 그리스도를 버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음성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식자로 찍든 안 찍든 이 책은 인쇄될 것이다. 이 일을 하면 다음 한 달 동안 모든 요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 힘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 나는 그때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는 그 책의 출판업자에게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놀랐지만 자신도 그 원본을 읽어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그 사악한 구절을 읽어 주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그것을 읽고 나자, 그는 내가 종교인이라고 물었다. 나는 이 교회 회원으로서 나의 배경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그는 그것을 존중하고 달리 그 식자를 칠 사람을 찾도록 그 원본을 돌려 달라고 했다. 나는 이제 틀림없이 그 고객을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다.

다시 어머니와 딸과 내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다. 나흘 동안 아무 주문도, 일도 없이 지나갔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그 일을 되돌려 보낸 것을 거의 후회할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주님에게 애원했다. 심지어 주님을 탓하기까지 했다. “어떻게 주님이 지금 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십일조를 낼 것을 다 썼으며 충분한 돈이 생길 만한 일을 얻었으나 당신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것마저 되돌려 보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만일 주님이 우리를 돕기를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지요?”

그러는 사이 닷새째 되는 날, 강인한 어머니마저 의심을 품기 시작한 날에 초인종이 울렸다. 밖에 서 있던 우체부가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에게 온 것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와야 되겠습니다.” 그는 덴마크 전역으로부터 여덟 명의 고객으로부터 8개의 큰 식자 주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내가 밤낮으로 해도 6개월은 걸릴 일이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여신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는 일거리가 부족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내가 원본을 돌려보낸 그 서적 출판업자가 나의 가장 큰 고객이 되었다.

그 이후로 딸들이나 나는 십일조를 내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때로는 어려운 시기에 유혹을 받기도 했으나, 주님이 그렇게 관대 하게 부어 주신 축복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주신 교훈 즉, 십일조를 내는 것이 번 돈에 대한 제일 첫째가는 우선 순위라는 교훈도 결코 잊을 수 없다.*

세 자녀의 어머니인 메테 한센 로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소속 와드에서 합창단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사용했던 것이었다.

나는 이 이상한 경험에 대하여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도한 후 원본을 집어 들다가 내 손에 먼지와 기름이 가득 묻은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을 갑자기 느꼈다. 나는 손을 닦고 그 원고를 만지려 돌아갔다. 그것에 손을 대자마자 그 원고가 깨끗한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손이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되자, 나는 너무나 불안해져서 울기 시작했다. 나는 한 번 더 무릎꿇고 주님에게 도움을 부탁드렸다. 내 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잠시 무릎꿇은 상태로 있으면서 그 원고를 처음부터가 아니라 마지막 페이지로부터 읽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일을 끝내는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것을 읽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나는 그것이 덴마크 전역의 국립 대학의 학생 교과서로서 제안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우리는 물론경에
교회의 기본적인
몇 가지 가르침이 들어 있지
않은 데도
“충만한 복음”(교성 20:9)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왜 물론경에는
영광의 세 등급,
영원한 결혼,
전세에서의 영의 존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등과
같은 교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에이치 루들로우, 조정 검토
책임자

질의 응답(I)

예 수 그리스도는 몸소 복음이라는
말을 니파이인에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그러고 나서 구세주께서는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을 받고, 끝까지 견딜
필요성을 포함하여 대속의 여러 가지
사실을 니파이인을 위하여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니삼 27:13-22
참조)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무죄한
생활과 갓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죄의 결과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을 포함한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육체적인 사망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대속의
이러한 면 이외에도 “기쁜 소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포함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다른
사도와 함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받고 이런
원리 가운데 일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7-38)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의 신앙 개조
제 4 조와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안수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복음이 가장 훌륭하게 요약된 것은 구세주께서 니파이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삼 27 : 19-21)

“충만한 복음”의 몇 가지 본질이 이 거룩한 경전 전체에서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물몬경에 있는 이

간단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구절에서 물몬경은 대속의 교리와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와 의식을 분명하게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물몬경 색인에서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참조 성구 참조) 이러한 것을 지킨다면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몬경은 승영에 필요한 의식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만한 복음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의 둘째 부분 즉, 왜 물몬경에는 교회의 모든 교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 봅시다.

효율적인 저자는 자료를 준비할 때 한 무리의 청중과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므로 왜 물몬경에는 어떤 내용은 있고 또 어떤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가를 알려면 물몬경의 저자들의 목적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몬경의 네 명의 중심되는 저자(기록자 내지 편집자)는

니파이(117페이지), 야곰(19페이지), 물몬(338페이지), 모로나이(50페이지)입니다. 이들 네 명의 저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니파이와 야곰은 전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으며(나이 11 : 2-3) 물몬과 모로나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물 1 : 15, 이더 12 : 22-39 참조) 모로나이도 전세의 그리스도에 대한 야벳 형제의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이더 3 : 9-16 참조) 이와 같이, 이들 네 형제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들 네 명의 저자는 모두 그들의 기록의 주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몇은 또한 그들의 기록이 성경(“유대인의 기록”)의 가르침에 대한 둘째 증거가 되게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 누구도 복음의 가르침과 의식을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필요한 것이나 또는 기록하라는 영감이나 명령받은 것만을 포함시키리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니일 19 : 2; 니이 28 : 2; 31 : 1; 32 : 7; 야 1 : 19; 니삼 26 : 12; 30 : 1; 몰 5 : 9-13; 8 : 1; 이더 8 : 20; 13 : 13 참조)

간단히 예를 들어, 이들 네 저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지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을 유의해 봅시다.

니파이 :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도록 권고하였음이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니이 25 : 23, 26)

야곱 :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기록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대로 저들이(독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의 강림 수백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 기다렸으며,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 역시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 기다렸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야 4 : 4)

몰몬 : “너희는 너희 조상에 관하여 알아야 하며, 너희의 모든 죄와 간악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기록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며, 또한 이방인들로부터 너희들에게 전하여져서 너희 앞에 이를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여 지키라.

“보라 이 기록은 너희가 그 기록을 믿게 하려 기록된 것인 바, 너희가 그 기록을 믿을진대 이 기록을 또한 믿을 것이요, 너희가 이 기록을 믿으면 너희 조상에 관하여 알게 되며, 하나님의 권세로 저들 가운데 역사된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될 것이요.” (몰몬

7 : 5, 8-9)

모로나이 :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를 기억하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볼 것임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로 기록하게 한 나의 말을 너희들에게 선포하여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리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거듭 이르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대속하사 흠이 없는 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너희가 성결하게 되리라.” (모로 10 : 27, 32-33) 이들 네 명의 저자는 참된 교회가 지상으로부터 사라진 믿음이 없는 시기인 마지막 날에 그들의 기록이 나아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음이었다. (니이 25 : 3-23; 26 : 16-24; 야 4 : 4, 13-16; 몰몬 8 : 25-35; 모로 10 : 24-34 참조) 그러므로 그들이 밝힌 목적은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된 후에 받을 모든 복음의 가르침과 의식을 전하기 보다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참된 교회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몰몬은 판을 요약하는 중에 자신이 취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의 사적을 백분지 일도 기록할 수 없음이라.” (몰말 1 : 5) 그러나 그와 판의 다른 중요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들의 분명한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자녀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이 28 : 30)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회복된 1830년 4월 6일경에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의식들이 초기 교회 회원에게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질문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지식을 많이

제공하는 계시는 그 이후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1. 영광의 세 단계에 관한 수많은 지식은 교리와 성약 76권에 담겨 있으며, 그것은 1832년 2월 16일까지 받지 못한 것입니다.

2. 영원한 결혼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과 지식은 1843년 5월(131편)부터 1843년 7월(132편) 사이에 주어졌습니다.

3. 전세의 영의 상태에 관한 가르침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도 요셉 스미스가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그가 가장 의미 심장하게 한 말은 1844년 4월 대회에서 전해졌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337-360페이지)

4.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가르침은 주로 124(1841년 1월), 127, 128편(1842년 9월)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에 계시 때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복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지더니, 마침내 충만함을 받으시더라.

“그는 처음에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으셨느니라.” (교성 3 : 13-14)

이렇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배우는 원리에 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함은 너희로 예배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아 예배하는 자가 누구임을 알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와서 정한 시간에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충만함을 받을 자는 없나니.” (교성 93 : 19, 27)

이 원리는 참된 교회 회원을 위하여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교성 68 : 4 참조)

이 개념 역시 우리의 신앙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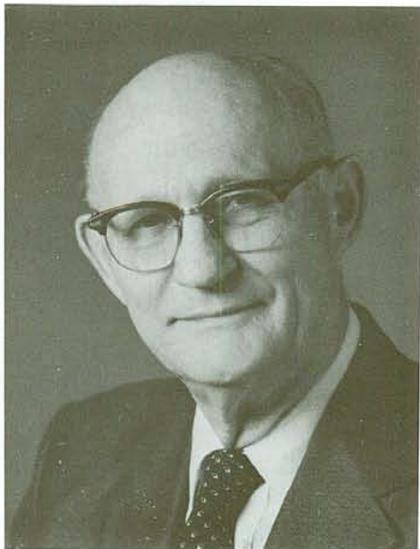
제 9 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가르침과 교리는 복음 원리는 “성경과 물몬경에 따르는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으로만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6페이지) 물몬경에 담겨 있는 복음이 충분하다는 것은 사람이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질의 응답(II)

물몬경의 어떤 성구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며 그는 다만 영체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로이 더블류 독시, 십이사도 평의회 사무실의 보조이며 브리검 영 대학교 신학 연구원 명예 학자.

성도의 빛/1986년 4-5월호

물 몬경 독자들은 말일성도 교리와 어긋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신회에 관한 구절에 대하여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구를 물몬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가르침과 함께 전체에 비추어 볼 때, 물몬경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은 서로 다른 세 분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영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 이상 계시니까? 이 질문은 비판자인 지에즈롬이 선교사인 앰울레크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엘마서 11장에 대하여 제기될 때가 많습니니다.

“지에즈롬은 음흉한 계략이 가득 찬 자라 능히 선한 일을 깨뜨릴 수 있었던지라 짐짓 앰울레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게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겠느냐? 하였느니라.

“이에 앰울레크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하겠노라. 만일 내게 거하시는 주님의 영에 합당하면 대답하려니와 주님의 영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한 마디도 말하지 않겠노라. 지에즈롬이 앰울레크에게 다시 말하기를, 보라 은 여섯 엔타이라, 네가 절대주의 존재를 부정할진대 이것을 모두 너에게 주겠노라...

“이에 지에즈롬이 앰울레크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느냐?

“앰울레크가 대답하기를, 그러하다.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이 계시도다.

“지에즈롬이 다시 말하기를,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시느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이에 지에즈롬이 앰울레크에게 다시 이르기를, 네가 이 일을 어찌 아느냐?

“앰울레크가 말하기를, 천사가 내게 그 일을 알려 주셨느니라.”(엘 11:21-22, 26-31)

앰울레크의 말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털어서 수많은

이스라엘인(니파이인의 조상)들은 애굽인 및 가나안 사람들의 수많은 이방신을 열렬히 받아들여왔습니다. 비록 물몬경은 암몬아이하의 지에즈롬성의 백성들이 받아들인 배도적인 교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마 시대의 일부 배도적인 니파이인들은 과거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 일부가 그랬듯이 우상을 섬겼음이 분명합니다. 앰울레크의 선교사 동반자인 엘마는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이며 대판사로서 강하고 충실한 교회 회원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스스로 마술이나 우상을 즐”겼습니다.(엘 1:32) 배도가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으므로 후에 엘마는 판사직을 그만두었는데, 그것은 “곧 니파이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엘 4:19)

엘마는 선교사로서 그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조램성의 백성들이 “주의 길을 혼란하게 하며, 저들을 다스리는 조램이 백성들의 마음을 피어 어리석은 우상에 절하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엘 31:1)

그러므로 엘마와 앰울레크가 지에즈롬과 이야기한 전 후 문맥은 이러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앰울레크의 대답은 완전히 이해될 수 있으며 확실히 올바른 것입니다.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며, 그는 자신의 신성을 인간이 만든 거짓 신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앰울레크는 신회는 세 분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이 목적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에즈롬에게 때가 되면 만물이 “유일의 한 하나님이 되시는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에 끌려 나오게 되리라고 선언했습니다.(엘 11:44)

아들과 성령은 목적과 사명과 영광에 있어서 “참된 살아 계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로 “유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엘마는 지에즈롬과 앰올레크가 토론한 다음 “앰올레크가 지에즈롬을 잠잠하게 한 일...을 보고, 엘마가 입을 열어 그에게 앰올레크가 한 말을 확실하게 강조하였으며, 앰올레크가 이야기한 사실을 더 자세히, 앰올레크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였더라.”(엘 12:1) 지에즈롬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면서 엘마는 신화의 개념을 좀더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이것이 준비된 구속의 계획이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마음을 강퍽하게 먹지 아니하면 나의 독생자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마음을 강퍽하게 하지 않으면 나의 독생자의 자비를 얻어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엘마 12:33-34)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는 다른 분이고 서로 구별되는 분이라는 진리가 분명히 나타나며 이것은 엘마와 앰올레크가 지에즈롬과 토론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앰올레크가 “참된 살아 계신” 한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리도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4-6)

바울도 앰올레크처럼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서도 간증했습니다.

물론경의 다른 곳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시기 직전에 그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니, 보라 저들이 봄에 하늘로부터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니삼 11:7-8 참조) 이 경험은 구세주께서 침례받고 변형하신 것에 관한 성경 기사와 비슷하며, 그때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며 지상에 계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인정하셨습니다.(마 3:17; 17:5 참조)

신화가 목적(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도 물론경과 성경에서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경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세상 것을 위하여 간구함이 아니요, 당신께서 그 믿음이 장하여 세상에서 내가 하도록 허락하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저들을 내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어 아버지이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내가 저들 가운데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니삼 19:29)

성경에도 구세주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 이와 비슷하게 기도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요 17:11, 21-22 참조) 두 경우에서 모두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그가 본질이나 실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신 것같이 모든 제자들이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아버지입니까?

지에즈롬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문제를 혼동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나?

“앰올레크가 답하기를, 그러하도다.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라. 시작이요 끝이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라.

“그가 세상에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의 죄를 거두시어.”(엘 11:38-40)

물론경에서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지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를 들어, 베냐민 왕은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선언했습니다.(모 3:8)

이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선지자들도 아들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증언했습니다.(요 1:3) 바울은 아들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 하늘과 땅에서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골로 1:16)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들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인에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 한국 성경에는 이것이 빠졌음) 창조하신 하나님”(엡 3:9)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면에서도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입양과 그와 맺은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의 성약에 의하여 그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빈아다이는 예수의 씨앗 즉,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기울여” 듣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이 관계를 암시했습니다.(모사 15:10-13 참조) 베냐민왕도 이 관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맺은 이 언약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곧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이르리라. 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너희를 영으로 낳으셨음이라.

너희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변화되었다 말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모사 5:7)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입양을 통하여 의인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를 대신할 권한을 부여하셨으므로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그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기도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니삼 20:31, 35 참조) 예수님은 또한 그 이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그의 제자들에게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요 14:28),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요 5:43)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까? 물론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위대한 영”이라고 한 두 성구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도 전체와 연관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암몬은 레이맨인 라모나이왕을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이까?”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암몬이 물기를, 위대한 영이 계시다는 것은 믿으시나이까?”

“대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암몬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앨 8:24-28)

또 한 번은 암몬의 형인 아론이 라모나이의 부친을 가르칠 때 그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하신 그 위대한 영이시나?

“아론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그분이 바로 위대한 영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두를 지으셨나이다.”(앨 22:9-10)

이때 암몬과 아론은 그 왕들이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더 폭넓은 진리의 기초를 배울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내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두 왕이 모두 그 “위대한 영”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을 입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로서 영적인 존재였으며, 당시에 그는 당연히 만물의 창조주이신 위대한 영으로 일컬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문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육체적인 실재성에 관한 교리를 알려 주며 그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관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벳 형제가 육신을 입기 전의 그리스도의 영체를 보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네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 3:15-16)

이천 년 후, 여호와께서 지상 생활로 들어오사 그의 영이 필멸의 육신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육체적인 형상을 취하셨으며, “태초에 창조된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셨습니다.(모사 7:27)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과 미대륙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 보게 하셨습니다.(요 20:27; 니삼 11:14 참조)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니파이인 방문을 끝내시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니삼 27:28)

비록 물문경은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의 “백분지 일”도 안되는 요약본이지만(물문의 말씀 1:5 참조) 신회에 관한 참된 교리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로버트 엠 윌키스

우리 동네에는 골목 매장이라고 알려진 한 작은 소년이 살고 있다.

이 조그만 소년은 그의 노란 색과 검은 색의 플라스틱제 경기용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근처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상상과 영웅적인 행동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일은 조그마한 자전거를 그의 집을 바깥 뒤로 하여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모아 위험하게 도로를

향하여 총알같이 달려나가는 일이다.

그런 다음, 핸들을 급하게 꺾어 다시 페달을 밟아서 돌아오는 일이었다. 근처의 이웃들은 누구나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부모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그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경고도 하고 애원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좀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얻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다.

강하게 징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소년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흐느끼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재미나게 노는 것을 망치고 싶어서 그러죠.”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바로 그것이 부모의 뜻인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재미있게 놀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다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는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자 함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사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 다른 어떤 소년을 알고 있는데, 그는 오래 전 어느 날, 방과 후에 집으로 와서 집에 전세 낸 피아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 피아노는 뭘 하실려는거예요?”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너를 위한 거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라니요?”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너는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될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아노 레슨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선생님까지 알아 두었다.

이 어린 소년은 레슨을 몇 번 빼먹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 잘 받고 있니?”라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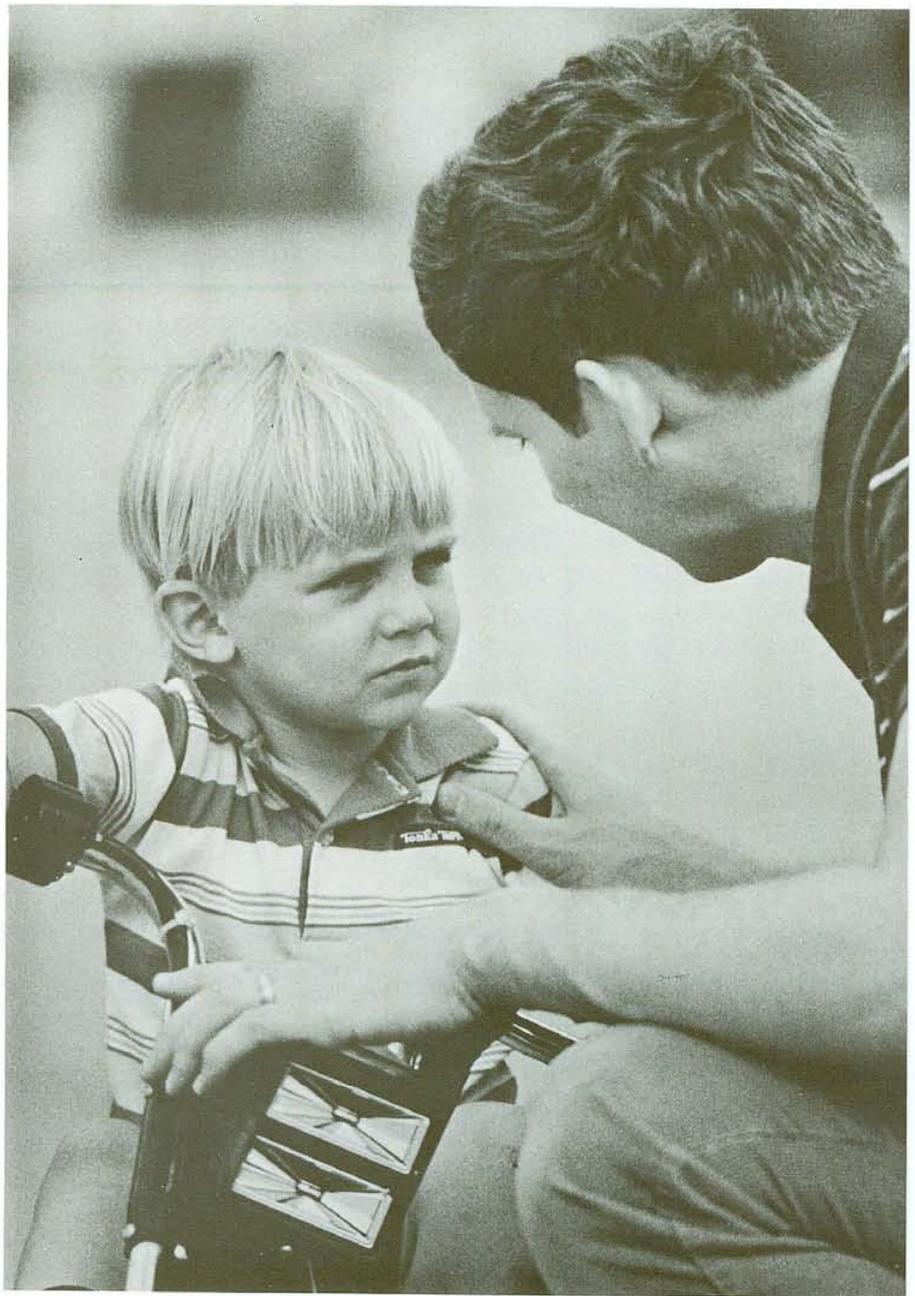
그는 “좋아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하구나. 내가 방금 선생님께서 전화를 걸었는데 선생님은 오랫동안 너를 못 보았다고 그러시던걸.” 그는 들킨 것이었다. 그는 어떤 벌을 받을지 몰랐지만 그것이 심한 벌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벌로 너는 피아노 레슨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는 벌을 받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의 그런 결정이 기쁘게 여겨졌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머니 정말 훌륭한 벌을 선택하셨군요. 그런 벌을 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자기가 방금 해방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연습과 레슨과 훈육과 그 들에 박힌 일과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는 어른이 되어 어느 날 교회 모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여인이 독창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독창을 할 순서가 되자, 단상으로 나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의 반주자가 오늘 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반주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여인은 청중을 둘러보면서 자기가 피아노를 가르쳤던 어떤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반주 좀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왔으며, 그 여인은 악보를 넘겨 주었다.

이런 일을 지켜 보면서 피아노 레슨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여인이 나에게 부탁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에게 부탁했다더라면, 나는 다만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한 가지만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겠지. 갑자기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으로 생각했던 그때 즉, 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레슨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교회 모임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원하면서도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없었으므로 마치 손에 수갑을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른 사람은 자유로웠다. 그는 피아노를 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볼 때 자유라는 것은 허락이라기 보다는 능력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하는 신화를 믿을 때가 너무 많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가 선택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개발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개발할 때까지는 우리 자신의 능력의 부족이라는 속박을 받게 된다. 많은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는 자유의 원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 능력이 한정됨으로써 선택의 범위가 축소된 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피아노를

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사실상 우리는 마음대로 피아노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단 한 가지밖에 선택할 자유가 없을 때, 즉 하지 않을 자유밖에 없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니파이 이서에 있는 “상대”되는 것에 대한 구절로서 유명한 구절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류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의로운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러운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선이나 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사에 짝이 없다고 한다면 만사가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만사가 한 몸이 될진대 생명도 죽음도 없고, 썩을 것이나 썩지 않을 것이 없고, 행복이거나 비참함도 없으며, 느낌도 느끼지 못함의 상태도 아닌 채로 죽어 넘어지리라.”(니이 2:11)

그 장을 더 읽어 나가면 우리는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과정인 타락과 대속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보라,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던들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으니 만물이 창조된 형상대로 남았을 것이요. 영원을 두고 끝이 없이 그 상태로 남았을 것이다.

“저들 시조는 또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에 무지한 상태로 머물어 비참함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또한 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나.”(니이 2:22-23)

비록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란 단지 간섭이나 억제나 책임 등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자유, 즉 하나님의 자유는 행하는 자유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할 자유가 있는가.”라고 자문해 본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벗어나는 자유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불편한 것과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목가적인

장소를 버리고 이 무서운 세계로 들어와야만 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오늘 나는 일년 전에 없었던 어떠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자유를 포용하기 보다는 자유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소비하고 있다. 금년 말에 우리가 좀더 자유스럽지 못하게 된다면, 또는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한 해를 큰 가치가 없는 해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어떤 일에서 여러분은 더 자유롭게 하게 되는가? 어떠한 새로운 선택을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인가? 구세주께서 자유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해 보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

흔히 자유란 짐을 쌀 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짐을 벗어 버리기를 원하며, 그곳에 자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몇 년 전의 어느 늦은 가을 오후에 나는 뿔나무를 가지러 산으로 트럭을 타고 간 일이 있었다. 계곡을 올라가는 길은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높이 올라갈수록 눈이 더 깊게 쌓였다. 곧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갔으며 눈이 깊게 쌓였다.

길 옆으로 차를 대었는데, 이내 꼼짝 못하게 되었다. 나는 바퀴 앞에 있는 통나무 몇 개를 움직여 보았으나 여전히 갈 수가 없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누가 따라올지도 몰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무를 패놓는 것이 좋을거야! 곧 나는 뿔 나무를 한짐 마련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도 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절어가는 게 낫겠군.”

나는 걷기에 앞서 한 번만 더 트럭을 움직이도록 시도해 보기로 했다.

내가 트럭에 기어를 넣자 트럭이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길로 다시 빠져나 왔다. 그 나무 짐이 그 트럭에

마찰력을 준 것이다. 텅빈 상태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짐을 싣고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텅빈 상태로 돌아다니서는 안된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반드시 우리의 자유가 파괴된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을 때가 흔히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기어가 들어 있지 않아서 마찰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사실상 자유는 짐과 더불어 오는 것이다.

자유가 자기 부정일 때가 흔히 있다.

나의 성장기에 부친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당시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하셨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부친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천 번을 그래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단 한 번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데, 그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그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자유스러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와 같이 되도록 권고하셨다. 때때로 그는 우리에게 “아니다, 그래서 안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 마디의 아니다 속에는 그래라고 천 번이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에 대한 소망을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는 모든 속박 중에서 가장 가련하고 고통스럽고 탄식할 만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얻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열의를 가지고 이러한 기회에 손을 뻗쳐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

우리는 누구나 모든 말일성도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으며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

더 많은 선교사가 나오도록 호소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축복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오 리는 구약전서에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투를 벌인 시기에 관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시리아 군대는 기습 공격을 해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도록 포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하고 시리아 군이 진친 곳을 알려 주었습니다.

시리아 왕은 엘리사 때문에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고 그 선지자를 찾아 내려고 첩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도시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밤을 이용하여 수많은 말과 전차병들을 보내서 도단과 그 주민을 에워쌌습니다.

매우 이른 아침, 엘리사와 그의 종이 일어나서 적에게 포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겁먹은 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는 자신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사환의 눈이 열렸으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았습니다. (왕하 6:8-18 참조)

나는 말일성도들이(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선교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이 부름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가 봉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정된 시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전 시간을 내서 봉사할 때 오는 전망과 축복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물러나 참여할까 말까 망서리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의 겁먹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과 모든 예비 선교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야와 눈을 열어 주시고, 여러분이 선교 사업의 영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도록 기도하려 합니다. 또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어서 나누며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들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려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호소의 긴박함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업에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투여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려 합니다. 선지자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대로……인간이 원하는대로” 허락하십니다. (엘 29:4) 나는 이것이 참된 원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충분히 강하게 원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을 추구할 때는 그것을 얻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닌 확고한 의지가 내적인 힘을 끌어내고 하늘의 지원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축복을 좀더 충분히 이해한다면 봉사하려고 하는 소망이나 의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제명과 축복을 함께 제시하십니다.



양심의 평화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한 사람에게
오는 조용하고 화평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 가지 계명을 열거하시고, 또 동시에 그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게 될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관련된 축복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헤아려 열거할 수는 없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같이 보이는 것을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주의의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의 성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금판을

다루려 해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적 이외의 것으로 인하여 좌우되어서도 안된다.”(요셉 스미스서 2:46) 달리 말하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신성한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인 동기를 품는 것에 대하여 경고받았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는 구세주의 생애와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이기적인 동기는 성령을 맞아들이는 이 사업에 순수함과 순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부름에 있어서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모색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수많은 축복이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하는 것은

그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쁨

우리는 모두 이 성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15)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일시적인 느낌이나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영속적인 행복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할 때 그 이전 어느 때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기쁨을 알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내가 선교 지역에서 느낀 그 기쁨은 다른 어느 곳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임프르브먼트이라, 1936년 10월, 659페이지)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여행했으며 복음 활동에 있어서 거의 모든 면에 다 참여했던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암몬이 자신의 선교 사업을 회상하면서 느낀 기쁨을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암몬은 여러 가지 말을 했으나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나니, 주의 뜻 안에서 기뻐하려 함이라……내가 느끼는 것 중 극히 작은 것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앨 26:11, 16) 기쁨, 이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양심의 평화

양심의 평화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한 사람에게 오는 조용하고 화평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법했을 때 영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한 것을 행할 때는 영이 평온합니다. 양심은 고의적인 불순종을 통하여 덜혀 가려질 수도 있으나 동시에 의도적인 순종을 통하여 성신을 잘



“선교사는 가르치고 간증하며”
또 가르치고 간증합니다.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누구나 양심의 음성을 적절하게 키운다면 거의 흠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든 말일성도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으며,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 모든 합당한 젊은이의 봉사를 포함하여 더 많은 선교사가 나오도록 호소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온전한 화평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부름에 귀기울이고 봉사하기 이전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충실한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요구되는 대로 그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되어서 인생의 노고가 끝날 때 그들의 창조주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 창조주에게 받아들여질 준비를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22년 4월 53페이지)

복음 지식의 성장

선교사들은 매일 두 시간씩 공부해야 합니다. 한 시간은 혼자서 공부하고 한 시간은 동반자와 함께 공부합니다. 선교사는 단지 선교사 복음 공부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물론경, 신약전서, 교리와 성약 및 구약전서의 일부를 여러 번 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사 토론과 관련된 교리를 통독함으로 기본적인 복음 주제를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과를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질문과 반대에 응답함으로써 선교사는 배울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르쳐 본 때까지는 정말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선교 사업은 복음을 공부하는 학교이며 선지자들을 위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함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수동적인 찬성 내지는 받아들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선한 사업을 하도록 인도하는 진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받아들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산 믿음이다.”(신앙 개조, 90페이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가 참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봉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면서 가르칠 사람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시도록 간구하며, 올바른

복음 선교사는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성도가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말씀과 올바른 방식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즉시 신앙으로 변합니다.

복음 선교사는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성도가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며, 성령의 속삭임을 느끼고, 방언의 은사와 기타 수많은 성령의 작용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한 권세가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타 많은 경험은 그들의 가슴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 줍니다.

주님을 가까이 느낌

나는 선교 사업을 생각할 때 베냐민 왕의 다음 질문을 자주



상기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모사 5:13)

어떤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 등을 바치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진실로 알 수 없을 것이며 구세주의 사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구세주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이란 인간의 구원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지상의 인간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이며 권능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2년, 494페이지) 신권은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들어 올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권세를 사용하면 이 권세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성령의 동반하심

나는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지만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욱 더 촉진시켜 줄 따름입니다.”(앤사인, 1977년 10월, 11페이지)

성신의 영이 이 사업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가 간증을 하며 개종시켜 줍니다. 선교사들은 그의 영향력 아래서 가르치며, 구도자들은 그의 영향력에 의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확립된 모든 동반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의 동반하심입니다.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고, 신회의 일원과 알게 되고, 자신의 여생에서 그의

영향력을 추구하십시오.

간증이 자람

수년 전, 나는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한 젊은이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가 거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간증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간증이 없이 봉사한다면 위선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육 개월 후에 다시 권유했으며 똑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해 주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가?”

“물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고맙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예. 물론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회부의 예언자였나?”

“물론입니다, 감독님.”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선교사들은 매일 두 시각씩 공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업을 행하도록 신성하신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오늘날 예언자이신가?”(이것은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얼굴에 크게 미소가 떠오르더니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떠나게 됩니까?” 그는 언제나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는 간증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선교사는 가르치고 간증하며, 가르치고 간증하며, 또 가르치고 간증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성령을 맞아들이며, 그들이 선포하는 진리가 그들 자신의 영혼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들이 외치는 증거가 밝고 분명하고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죄의 용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고, 세상에서 강한 간증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의 죄가 보다 쉽게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3페이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히디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약 5:19-20)

나는 몇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에서 경험한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의 얼굴에 너무나 특별한 빛이 빛나고 있었으므로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 사업에 헌신함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범법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처럼 얼굴에 진리의 빛이 빛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모임이 끝났을 때 우리가 단상을 떠나기도 전에 이 젊은이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시 장로님, 잠깐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나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실에서 기다리게. 곧 거기 가겠네.” 그는 돌아서서 복도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감독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시 장로님 저를 잊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그래. 그런 것 같군. 용서해 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의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과 함께 장로님의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어리석은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신권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하기 전에 특별한 회개를 하고 또 깨끗함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장로님께서서는 제가 범법한 것을 열거했을 때 ‘결코 자네가 봉사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내가 그런 말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었으며, 그의 감독도 울었고, 그의 스테이크 부장도 울었으며, 그들이 모두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는 “좋아, 두 가지 조건으로 허락하겠네.

첫째 모든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며 생활할 것, 절대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되네.

둘째는 지명받은 선교부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시 장로님, 장로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저는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귀환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선교사 규칙이나 계명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거나 옹통성을 부린 적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선교부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감사했으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깐 서서 다시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시 장로님 오랜 세월 동안에 처음으로 저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네, 자네는 자네의 봉사에 의하여 성결하게 되었네. 자, 이제 집으로 가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그 이후로 그는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이젠 아버지로 전문적인 학위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의 사도 가운데 한 분인 조지 에프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 사업에 헌신함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범법을 용서하시며, 여러분은 완전하게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그러한 약속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성품을 쌓고 개발함

십이사도 평의회는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는 선교 사업이 말일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성품이 개선되었습니다.

희생으로 인하여 자제심을 배웠습니다. 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관대한 마음을 키워 주었습니다. 미덕을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고, 높은 영성으로 인하여 간증과 영혼의 발전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대회 보고, 1945년 10월) 참으로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내가 성품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성품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수년 동안 쌓은 습관과 경향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선교 지역에서 습득할 수 있는 습관, 경향, 성향, 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습관을 키운 선교사의 얼굴에서 그런 훌륭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못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짧은 몇 개월의 봉사 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수양을 직접 못 보신 분이 누구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됨

구세주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엔 엘돈 태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이 교회 회원이 모두 다 오늘날 우리 예언자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생활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실제 행동에서 선교사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정부와 모든 군대가 힘을 다 합친 것보다도 평화의 대업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2년 10월) 가장 위대한 평화 운동은 복음 선교사 또는 주님의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는 운동입니다.

봉사함

우리는 모두 베냐민왕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도 봉사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너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익한 중에 불과한 것이니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시나 너희가 이를 행하면 즉시 너희를 축복하시니 이미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신

것임에 그 일로도 너희가 빚을 진 것이요, 현재가 그러하며 장차도 그러하며 영원토록 그러할 것임에 너희가 무엇을 뽐낼 수 있겠느냐.”(모사 2:17, 21, 23-24)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심을 쌓음

어떤 사람도 나만큼 아르메니아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구요? 내가 그들 사이에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공부했으며, 그들 영혼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는 한 귀한 선교사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학교 공부를 중단했었는데,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음 선교 사업에 시간과 재능을 헌신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성에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더함으로써 훌륭하고 덕망있는 의사로서의 완전한 구비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1년 2월호, 36페이지) 선교사들은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심을 얻게 됩니다.

영속적인 우정을 쌓음

실제로 모든 선교사가 5~6명의 동반자와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특권을 갖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들은 특별한 우정의 결속 관계를 쌓습니다. 그런 우정 가운데 어떤 것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내가 관리했던 어떤 선교 지역에는 적응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중하게 그의 동반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하게 보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동반자에게 자신의 덕성과 장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선교 지역을 떠날 때 두 사람 다 건전하고 강건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환하고 몇 년 지난 후, 그 한 사람이 심각한 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 이전의 동반자가 이미 연락을 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침례주는 사람과 함께 쌓게 되는 그 모든 평생 동안의 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텍사스에서 경험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젊은이에게 귀환하기 전 마지막 접견을 하도록 선교 본부로 오라고 지시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르치고 침례를 준 어떤 형제와 함께 와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나는 선교 본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복잡한 일정이 있었고, 그 젊은이와 접견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새 개종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새 개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훌륭한 교훈이 되며 그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사랑이 표현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 지역에서 동반자와 개종자와 함께 쌓은 우정은 영원하게 됩니다.

기념할 만한 경험

김볼 대판장님은 선교 사업을 큰 모험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사업이며 가장 훌륭한 용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는 한 번 어떤 영화의 광고에서 “가장 모험적인 탈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도와 주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을 영적인 죽음의 가장자리로부터 제자리로 데려 오려고 노력하거나, 악한 세력과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려고 노력해 보기 전에는 진정한 모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주님의 사업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큰 모험과 더 흥미로운 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한 백성을 준비시킴

150여 년 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한 가지 계시가 주어졌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교성 65 : 2, 6)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성취의 일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선택받은 일입니까? 왕국을 건설하며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서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은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쌓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도력 훈련

교회에서 선교 사업만큼 지속적인 힘이 있는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환 선교사에 관한 최근의 조사를 보면 91%가 적어도 한 달에 3번 이상 성찬식에 참석했으며, 89%가 교회에서 적어도 한 가지 직책을 맡고 있고, 95%가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귀환 선교사는 교회에서 특히 전세계 개발 도상 국가에서 소중한 지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아내와 함께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몇 사람과 접견하면서 주님께서 누가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이 될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은 서른 살도 안된 귀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 몇 년 동안에 수많은 경험을 또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봉사하고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가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영생입니다. 나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는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생의 것을 추구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가르칠 수 있고, 또 진리를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지식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 줄 수 있는 불멸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의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올 세상에서 그들로부터 영속적이고 영원한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보아도 우리에게 이것만큼 소중한 보물은 없습니다.”(대회 보고, 1916년 10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도와 주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후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밀으로 손질을 뺀치고 위로 들어 올림으로써만 자기 자신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 줌으로 그 길에 가장 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마음대로 깊이 간직하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 : 29)

나는 선교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축복의 예를 열일곱 가지 들었습니다.

그 축복은 더 있으며 그 목록을 들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마음을 돌리고 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다면 여기에 열거한 축복과 더 많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은 십일조처럼 말라기의 말대로 축복을 부어 줄 것입니다.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쌓아 둘 곳이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말 3 : 10 참조)”(1975년 8월, 한국 지역 대회 보고 61페이지)

이 사업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있게 될 사업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이것에 대하여 접견하신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는 것이니라.(교성 15 : 6 참조)

나는 말씀을 시작할 때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성역을 완수할 무렵에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왕하 2 : 9)

나는 선교 사업의 영이 갑절이나 여러분에게 부어져 내려서 이 사업의 긴급성을 깨닫고 또 이 사업에서 올 수 있는 많은 축복을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여 나아가서 순수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봉사하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

신앙으로 나아가

Ruth M. Gardner

Lyall J. Gardner

힘차게 ♩=92-112

신앙으로 나아가 주에 수아들되
 사랑으로 나아가 영원한사람나
 힘차게 나아가 회복된복음말하
 세

증거—하 고 기 적 의 말 씀 을 전 하 세
 주 죽에 의 기 기 온 세 상 에 전—파 하 세
 수 그 리 스 도 통 한 영 생 을 언 고

회 망 과 용 기 로 말 씀 을 널 리 전 하 고
 보 상 파 을 바 라 지 않 고 최 신 다 하 면
 말 씀 듣 는 자 모 두 주 님 찬 양 하 도 록

인 간 이 하 나 님—자 녀 됨 전 파 하 세
 주 님 섬 기 는 큰—기 기 알 계 되 리 세
 평 화 와 기쁨 나 사—랑 의 진 리 전 하 세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패티 라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의 글짓기 대회에서 일등한 말씀

애 리애너는 보도를 천천히 내려갔는데, 그곳은 아침 그 무렵에는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급히 달려가는 사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가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학교로 데려가고 있었다. 교차로는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일부 운전사들은 시간내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해졌다.

애리에너는 자기 딸인 샌드라를 도보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통학 버스가 있었지만 애리에너는 매일 자신이 직접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녀는 아침 산책과 또 저녁에 딸을 데리고 오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또 이렇게 산책하면 어린 샌드라와 소중한 몇 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갖게 된다. 그들은 산책하면서 언제나 이야기했다. 그 아이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고 함께 나눌 조그마한 비밀이 너무나 많았으며 또 웃을 일이 너무나 많았다.

이 조그마한 소녀는 탐험하고 발견하기에 너무나 멋진 새로운 세상을 애리에너에게 활짝 열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애리에너는 벌써 피로하게 느껴졌으며 약간 우울하기까지 했다.

남편이 며칠 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으며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교회 부름에서 받았던 그러한 따뜻함과 지지가 그리워졌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게 되어 있었다.

갑자기 애리에너는 자기가 해야 하는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일에 압도감을 느꼈으며, 집까지 다시 걸어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졌다. 상쾌하게 산책하는 것은 신체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였지만 오늘 아침에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거부하고 있었다. 집까지의 먼 거리는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것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다음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런 결정을 해도 자신의 낙담스러운 느낌이 줄어들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우울해졌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했다.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떠나서 낯선 도로를 달리고 있을 남편을 생각했다. 그는 직업상 여행을 많이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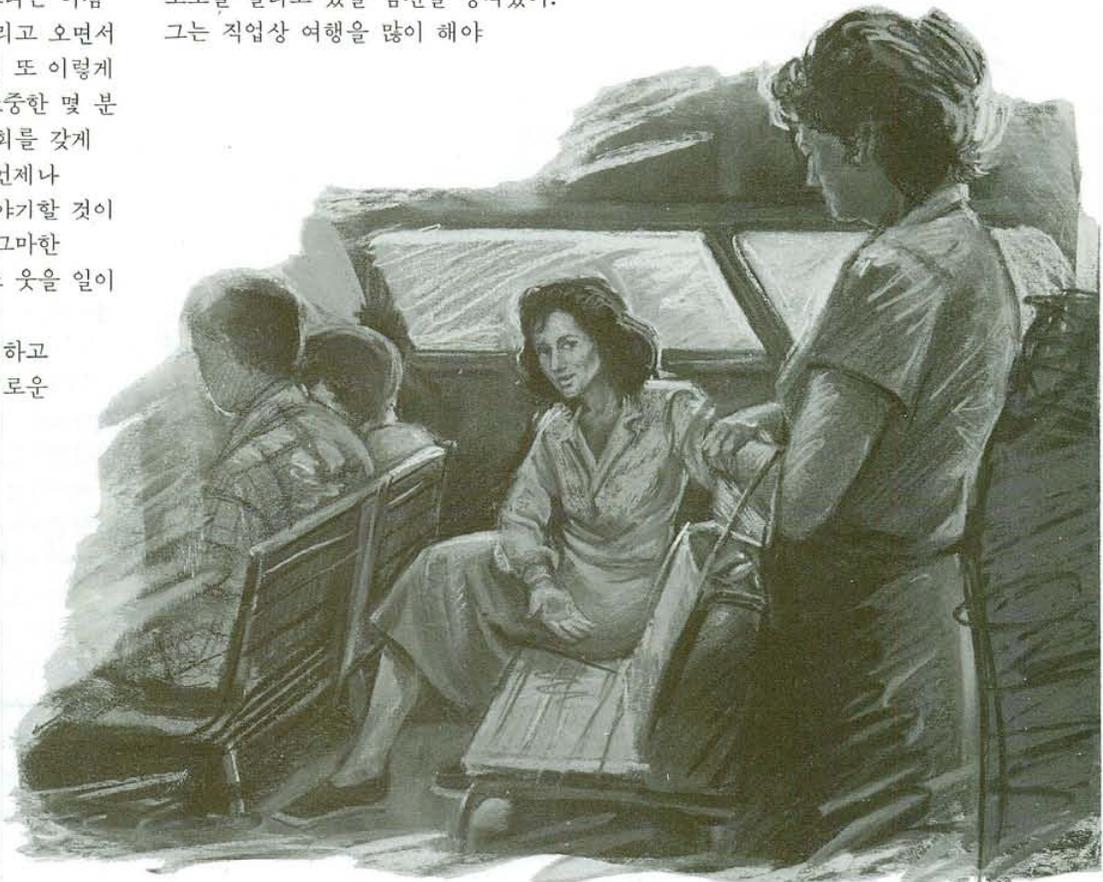
했으며, 애리에너는 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늘 염려했다.

라고 자매도 생각이 났는데, 그 자매는 간장염을 앓고 있어서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었다. 애리에너는 그 자매의 방문 교사였으며,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라고 자매를 더 도와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다시 어린 샌드라 생각이 났고, 삼 일 동안 감기를 앓고 있는데 샌드라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다.

또 어머니에게 편지 쓴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애리에너와 그녀의 형제들은 성장해서 집을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님은 몹시 외로울 것이 틀림없었다.

이러한 생각이 스쳐가면서 또 그날과 앞으로 며칠 동안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책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중압감을 느꼈고, 남편이 집에 있어서 남편한테 의지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복잡한 버스에 서 있는 동안 다른 것이 생각났다. 사라다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쓸 토마토를 사야 한다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만일 걸어갔더라면 가는 길에 그것을 샀을 것이다.

버스가 슈퍼마켓을 몇 군데 지나치게 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는 않는다.

그녀는 더욱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한숨을 쉬었으며 그러는 동안 왼쪽을 보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의 옆에는 역시 다른 여자가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이 마주쳤다.

애리애너는 약간 당황하면서 미소를 짓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그 낯선 여자도 얼른 미소를 보이고는 다른 방향을 쳐다 보았다.

애리애너는 다시 토마토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알프레도의 가게에서 사야지. 그리고는 집까지 걸어가야지. 그곳은 별로 멀지 않거든.” 하고 생각했다.

자리가 하나 비어서 애리애너는 즉시 거기에 앉았다. 그러나 거기에 앉는 순간 우연히 조금 전에 서로 눈이 마주쳤던 그 여자와 부딪혔다.

두 사람 다 동시에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애리애너가 “앉으세요.”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앉으세요.”라고 말했다.

애리애너는 그 여자에게 고맙다고 하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 빈 자리에 털석 앉았다. 버스는 계속 달렸으며, 잠시 동안 애리애너는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 여자는 검소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눈은 피로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눈동자는 밝은 갈색이었으며, 그 밑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몸을 들렸으며, 애리애너는 다시 미소를 보였다. 이번에는 그녀를 지켜 보다가 들켰으므로 조금 당황했다. 창문 밖을 통해 아침의 그

혼잡한 교통 상황을 내다 보면서 그녀는 왜 아직도 그날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그러한 느낌이 계속 있었으며 토마토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몇 분 뒤에 그녀의 옆 자리가 비어서 즉시 그 여자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여기 빈 자리가 있군요.”라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그 여자는 “고마워요.”하고 옆에 앉았다. 애리애너가 그 여자를 쳐다볼 때마다 그 여자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대화를 나눠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날씨 참 좋지요.” 그 여자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애리애너는 그 여자에 대하여 친근한 감정을 느꼈다.

애리애너는 그 여자가 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기 기억력이 나쁜 것과 토마토를 좀 사야되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짚박 잊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토마토를 좀 팔 수 있습니다. 제 마당에 토마토를 좀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토마토가 너무 많거든요.”

애리애너는 기뻐서 외치다시피 했다.

“아, 그것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집에서 기르는 것이 더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애리애너의 집으로부터 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깐 주저했다. 거기에 가려면 자기 집을 지나쳐야 하며 토마토를 들고 집으로 다시 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낭비될 것이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친근감이 생기기 시작한 이 여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와 함께 가기로 했다.

그들이 버스를 내릴 무렵 애리애너는 이 여자의 이름이 테레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마당이 있는 작은 집들이 늘어진 길을 따라 걸어갔으며, 좀 초라하지만

깨끗하고 손을 잘 본 집에 도착했다. 애리애너는 이렇게 외쳤다. “참 멋있군요. 나는 언제나 정원이 있는 집을 갖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새장에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테레사는 미소를 지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리애너를 그 집 뒤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데리고 갔다. 두 여자는 토마토를 따서 테레사가 애리애너에게 사용하도록 준 작은 바구니에 담았다.

토마토를 따면서 테레사는 좀더 솔직하고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애리애너에게 자신이 최근에 홀몸이 되었으며,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작은 바구니가 가득 찼으며, 테레사는 일을 하느라고 허리가 조금 아팠던지 이렇게 말했다.

“가시기전에 잠깐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애리애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또 시간이 가는군. 그럴 수는 없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그러나 무언가가 “에,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몇 분 후에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테레사는 애리애너에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버스 안에서 우연히 서로 쳐다보게 된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나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갑자기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으며, 애리애너는 그 눈에서 고통과 슬픔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테레사는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함께 재정적으로 고생했던 이야기와 남편이 가끔 실직했던 이야기와 그들의 딸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꺾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딸이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홀독하게 일을 시키는 직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테레사는 더욱 심각해져서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고 불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 중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같았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입이 경직되었으며, 그녀의 눈은 쓰라린 표정을 지었다.

애리애너는 무언가를 할 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복음에는 틀림없이 이 상냥하고 고통받는 자매를 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어떤 위안의 말도 이 여자가 경험한 그 현실의 집에 대해서는 공허한 것같이 보였다.

테레사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아주머니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리애너는 누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시키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테레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에 애리애너는 그녀를 위로하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곧 이 새로운 친구가 고마워서 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테레사는 조금 진정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젯 밤에 나는 꿈을 꾸었는데 아주 이상한 꿈이었어요. 나는 길고 어두운 장소로 걷고 있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치 내 발 밑에서 캄캄한 굴이 입을 여는 것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신에 특별한 빛이 빛나는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으며, 나는 그 여자가 가지고 온 빛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왜 왔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테레사는 목메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여자는 당신이 대답한 것과 똑같이 대답했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로 조용히 마주 쳐다보았다.

이제 애리애너는 매우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너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쌓아 두라. 그리하면 필요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대로 말해야 할 말을 주시리라.”(교성 84 : 85)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 영이 그녀에게 테레사가 들어야 할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도록 영감을 준 것이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군요. 우리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리애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주님께서는 결코 먼 곳을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테레사는 호기심이 차서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라고 물었다. 애리애너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테레사는

평장한 관심을 갖고 들었다.

애리애너가 다음 주 가정의 밤에 참석하도록 초대하자 그녀는 딸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이 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 여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그 빛을 너무나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포옹한 다음 애리애너가 지갑과 외투와 토마토를 집어 들었다. 일단 길에 나서자 안도감과 힘이 났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로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에만 행복을 찾게 되는군. 그것이 바로 비결이야.”

시간이 늦어서 그날 점심 식사는 상당히 늦어지게 될 것이다. 그녀는 훌륭한 사라다를 만들어서 라고 자매에게 가지고 가서 함께 먹으려 했다.

또 소아과 의사와 약속을 해서 너 이상 걱정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샌드라를 진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호텔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를 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우리는 집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으며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샌드라를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도 잠자기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전부터 부탁해 온 요리법을 적어서 보낼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의 영이 넘쳤으며, 커브 길에서 교통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며 아직 다른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했으며, 다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더해졌던 것이다.

패티 라라 자매는 교회 개종자로서 직업 통역사이며 스페인의 카디즈 지방부 로타 군인 지부에 참석하고 있다.

그녀는 지부와 지방부에서 모두 부름을 받고 있다. 그녀가 쓴 이야기는 실화이다. *



성도의 빛/1986년 4-5월호

구조의 노래

게리 로렌 맥칼리스터

“여기는 구급대.
 이봐, 베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전화 번호부에
 브라우어 감독의
 전화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좀 해주게.
 우리에게는 증상을 입은 여인이
 한 사람 있는데
 그 감독의 교회 회원이야.”

그 사건은 우리가 그 마을을 떠나고 있을 때 일어났다. 우리는 세 집에 대한 법적 서류에 서명을 했으며, 아내의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하여 잠깐 멈추어 있었다. 우리의 세 살된 딸 지 제이는 뒷좌석에 잠들어 있었으며, 우리는 다른 세 자녀가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었다. 아내 게이드라는 뜨게질을 시작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좌석 벨트를 매야 한다고 일깨워 준 사람은 없었다. 그 시간은 오후 약 5시경이었다.

우리는 시속 88킬로미터로 움직이는 복잡한 교통 대열 속에 있었다. 교차로로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반대편으로 오는 차가 우리 앞에서 급히 좌회전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가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의 양쪽에 모두 차가 늘어서 있었으므로 나는 차의 핸들을 꺾을 수가 없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멈추어지지 않았다.

정면 충돌하게 됨에 따라 나는 핸들과 앞의 유리창에 부딪혔다. 나는 숨이 가빠오기 시작하였으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고 애썼다. 나는 그녀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듯이 부러진 핸들을 무릎 사이에서 차내버리는 동안에 딸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나는 휘발류가 흘러나와서 자동차가 폭발할까봐 두려웠으며 아내와 딸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문이 열렸으며 나는 일어섰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 나는 내 신발 사이로 망가진 라지에타로부터 물줄기가 조금씩 흐르는 것을 보았으며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바로 저 안으로 내려가야지.”

어떤 사람들이 나를 길 옆의 풀밭으로 운반하는 동안 나는 다시 의식을 찾았다.

아내와 딸에 대하여 묻자 그들은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아직도 딸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내와 나와 또 다른 부상당한 운전수가 모두 들것에 눕혀졌다. 딸은 구급차 앞쪽에서 구급 요원 한 사람과 함께 앉았다. 아내는 여러 번 일어나 앉으며 딸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애썼으나 다시 무의식 상태로 빠져 들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울음을 멈추었다. 의사 한 사람이 응급실로 들어와서 나를 진단했다. 그는 간호원에게 지시를 하고 떠났다. 그 간호원은 유쾌하면서도 능률적이었다. “맥칼리스터씨, 부인께서는 두뇌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두뇌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 헬리콥터로 대학 병원에 보내서 수술받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부러져서 느슨해진 뼈를 손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괜찮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호원은 나를 혼자 두고 나갔다. 그 시간은 벽시계로 다섯 시 이십 분이었으며 방은 매우 조용했다.

나는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의 아내를 도와 주소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안됩니다.” 눈물이 눈꺼풀 주변의 상처에 스며들어 쭈셨으며 눈섭과 이마에 유리 조각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영원한 애인을 잃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애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을 맞았다.

문득 나는 옆에 누가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흰 병원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은 두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들은 교회에서 온 장로들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 제 아내가 방사선실에 가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들은 “이미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또 “내 딸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마님도 축복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을 주고는 떠났다. 그때가 다섯 시 반이었다.

나는 궁금했다. 그 장로들이 누구였을까? 어떻게 빨리 여기에 왔을까?

나중에 나는 자초 지종을 알게 되었다.

구급차를 운전하는 스무 살된 그 응급 요원은 매우 바빴다. 그는 겁나서 울고 있는 세 살된 소녀에게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소녀의 부모는 모두 부상을 당했으며 어머니는 증상을 입고 있었다. 그가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마 노래를 불러주면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어린이 노래라곤 아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가 최근에 가입한 교회에서 방금 배운 주일학교 찬송가 하나뿐이었다. 이 어린 소녀가 그

노래를 알고 또 그 노래로부터 위안을 받을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노래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더욱 더 강해져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님과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그 어린 소녀가 조용해지더니 1절이 끝난 다음 함께 노래부르기 시작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나 비록 어렵도……”

2절이 끝났을 때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 말일성도니?” 라고 물었다. 그 소녀는 “예.”라고 대답했다.

“엄마 아빠도 그래?”

“예.”

그는 무전기를 잡아당겼다.

“여기는 구급대. 이봐, 베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전화 번호부에 브라우어 감독의 전화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좀 해주게. 우리에게는 중상을 입은 여인이 한 사람 있는데 그 감독의 교회 회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 감독은 메시지를 받고 신권 소유자들이 몇 분내에 병원에 도착했던 것이다.

아내는 대학 병원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지 않았다. 엑스레이에는 뇌골절이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딸과 나는 그날 밤에 퇴원했으며 2주 후에 우리는 수술받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 아내는 그 사건 현장과 그 사건 후 며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우리는 시속 88킬로 미터로 정면 충돌했는데도 살아났던 것이다.

일년 후 우리는 아내의 생명을 전지는 데 도움을 준 그 젊은 구급 요원이 선교사로 출발하는 작별 모임에 참석했다.

게리 로렌 맥칼리스터는 생물학 부교수이며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랜드 정션 콜로라도 웨스트 스테이크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원목의 권능

빅터 더블류 매튜

로이는 곧 사무실로 돌아와서 카드를 한 장 주었는데, 거기에는 그의 신권 권능선이 타자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그의 신권 성임이 어떻게 초기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에게 내려왔으며, 또 그들은 각각 어떻게 성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일목 요연하게 보여 주는 목록이 있었다.

오래 전에 나의 형제인 르로이 이 매튜와 그의 가족은 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로이는 간단한 면담을 위해 병원장의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원장은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로이에게 앞으로 일년 동안 그 병원의 원목으로 봉사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해마다 다른 성직자를 순환제로 지명하는 것이 그 병원의 수년 동안의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때까지는 비록 그 마을의 약 50%가 말일성도였지만 다른 교회의 성직사를 지명했던 것이다.

로이는 원장에게 그런 부름을 받아서 영광이며 기쁘게 이 부름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로이는 다시 그 병원장의 사무실로 불러 갔으며, 그

지역의 성직자들이 그를 지명한 것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로이 매튜에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나 그가 “복음에 성임된 성직자가 아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원목으로 지명받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그 원장은 로이에게 복음의 성직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물었다. 로이는 집으로 가서 한 시간내에 필요한 사항을 갖고 오겠다고 말했다.

로이는 곧 사무실로 돌아와서 카드를 한 장 원장에게 주었는데, 거기에는 그의 신권 권능선이 타자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그의 신권 성임이 어떻게 초기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에게 내려왔으며, 또 그들은 각각 어떻게 성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일목 요연하게 보여 주는 목록이 있었다. 그 원장은 그 증서를 조심스럽게 읽어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의 권능은 주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그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원장은 놀라면서 또 기쁨을 표시하고 며칠 동안 그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으냐고 물었다. 물론 로이는 괜찮다고 했다.

그 후에 다시 로이는 그 사무실로 불러갔으며, 그 병원장은 성직자들과 만나서 로이의 신권 권능선을 그들에게 읽어 주고 그들이 이것과 비교할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대답한 것이라고는 신학교에 다녔으며 신학 대학에서 성임받았다는 것뿐이었다.

로이는 더 이상 반대나 항의없이 지명되었다. *

손을 뺀처 올라가십시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불가능한 것같이 보이는 과제에 직면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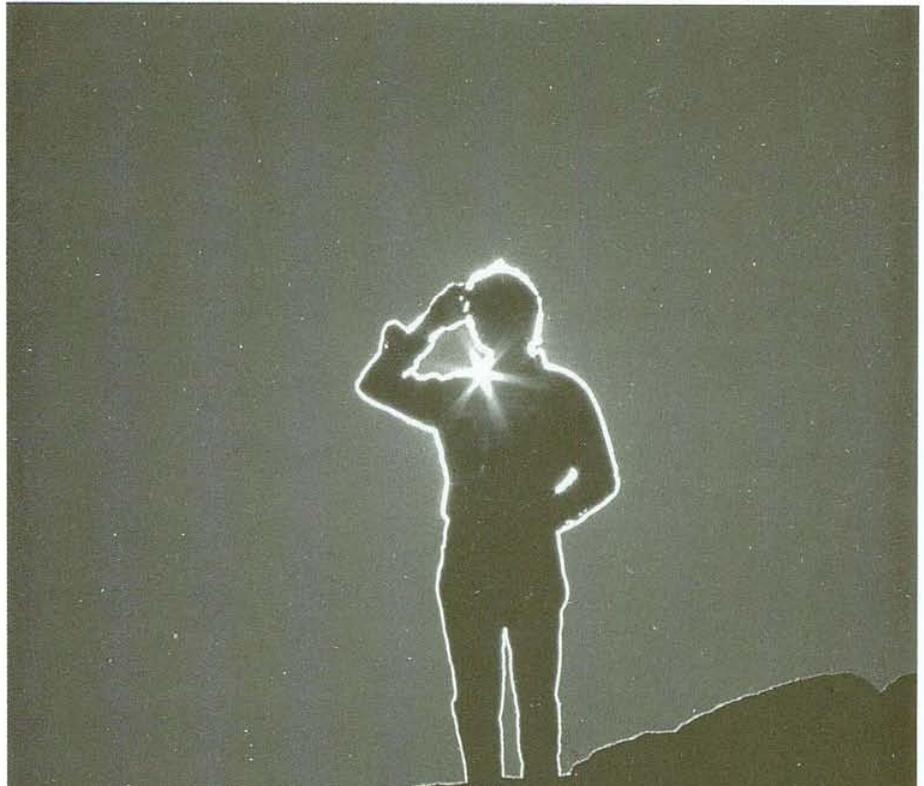
우리는 누구나 장애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는 모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벽의 기슭에 서게 됩니다.

1895년에 나의 증조부인 아빈아다이 올슨은 사모아 섬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부름에 순종해서 아내와 나의 외할머니인 체스티 막달린을 포함하여 네 명의 어린 자녀를 유타주 캐슬 데일 마을에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사모아의 아피아에 있는 선교 본부까지 26일 동안 기차와 배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그의 첫번째 임무는 투투일라 섬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초가집 같은 곳에서 살면서 이상한 음식을 먹고 심한 병을 앓고 사모아 언어를 배우느라고 고생했는데도 선교 사업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실망에 잠겨서 아피아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선교부장에게 더 이상 사모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릴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업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장애물은 극복하기 불가능한 것같이 보였으며, 선교 지역에 와 있는 직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내와 직녀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빈아다이 올슨이 귀환한 다음 몇 년 후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한 친구는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의 오두막집 마루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나라 말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의 말하는 태도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그 마을을 통과하여 90° 각도의 바위 절벽 아래로 데리고 갔다. 나는 ‘이상한데. 전에는 여기에서 이것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때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이 저 절벽을 올라가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다. ‘안돼요. 불가능합니다.’

“그 낯선 사람은 ‘어떻게 못한다는 것을 알지요? 아직 시도해 보지도 않았읍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지만 누구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을 막았다. ‘올라가기 시작하십시오. 당신 손을 뺀처 올리고 이제 발을 올려 놓으시오.’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손을 뺀치는 동안 그 단단한 바위 절벽에 틈이 하나 열려 있는 것 같았으며 그것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한 발로 발판을 찾아서 발을 올려 놓았다.

“그는 이렇게 지시했다. ‘자 계속하십시오. 다른 손을 뺀채 올리시오.’ 그래서 그대로 하자 또 다른 장소가 열렸으며 놀랍게도 그 절벽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기어 오르는 것이 더 쉬워졌고, 나는 어렵지 않게 계속 기어올라갔는데 갑자기 내가 오두막집의 그 짚단 자리 위에 누워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낮선 사람은 가고 없었다.

“나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이 생겼을까?’ 그 대답은 곧 왔다. 나는 그 삼 개월 동안 상상에 의한 절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절벽 오르는 것을 시작하기 위하여 손을 뺀치지도 않았던 것이다. 나는 언어를 배우고 기타 다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연히 노력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펜튼 엘 윌리엄스,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에 관하여”,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7년 8월호, 554페이지)

아빈아다이 올슨이 선교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삼 년 반 동안 일한 다음 합당한 권능에 의해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게 효과적인 선교사였으며, 여생 동안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책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극복하기에 불가능한 것같이 보이는 장애에 직면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결코 우리 뒤에서 받쳐 주는 권세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뺀채 기어 올라야 합니다. 손잡이는 손을 뺐을 때 찾게 될 것입니다. 발판은 움직이는 발을 위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노력이 신앙을 낳는다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이 말씀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경전에는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 경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나왔을 때 그들은 홍해에 부닥쳤습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인들이 뗏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추적하는 바로의 전차대에 직면했을 때 등 뒤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출 14 : 13-14) 그러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출 14 : 15)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모세는 명하신 대로 그의 막대기를 뺐었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통과해서 갔습니다.(출 14 : 16, 22)

그들은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며,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렛의 동생은 그의 백성들이 건설한 밀폐된 배 안에서 빛을 갖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함이 어찌이냐.”(이더 2 : 23) 야렛의 동생은 16개의 투명한 돌을 녹여 주조함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신앙을 갖고 주님에게 손가락으로 그 돌을 건드리시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돌로 암흑 중에 빛을 말하게 하시옵소서……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을 주리이다.”(이더 3 : 4)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의 출선수법과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에 의하여 해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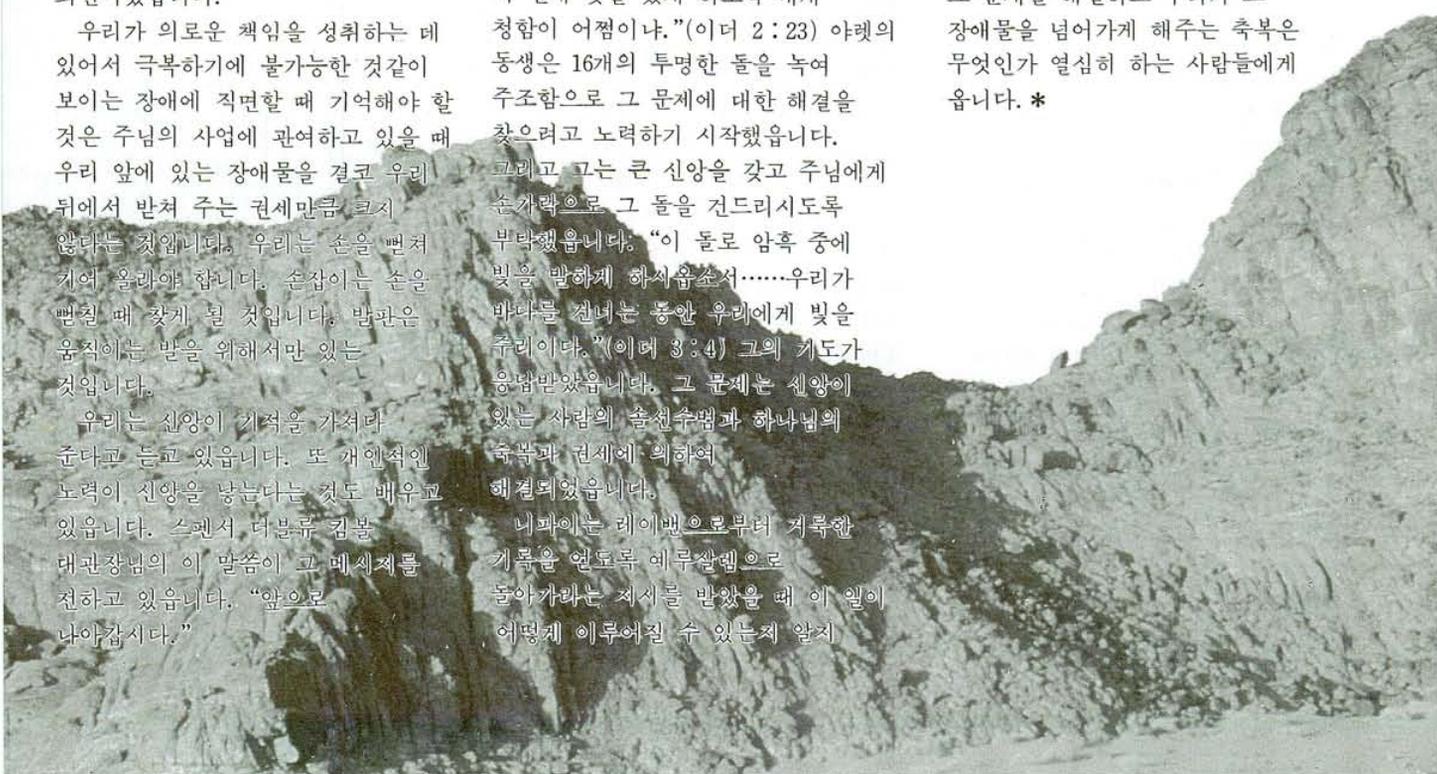
니파이는 레이벤으로부터 거룩한 기록을 얻도록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신앙 가운데 명령받은 대로 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니파이는 주님께서는 그가 명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니일 3 : 7) 니파이는 그의 신앙과 출선수법을 통하여 그의 임무를 완수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세대가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게 해주는 그 축복은 우리의 노력보다 선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는 다음에 옵니다. 리아호나는 리하이와 그의 자녀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졌지만 그것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사막에서 몇 년을 보낸 후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조직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교성 136 참조) 나무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오마하 근처에 있는 미주리의 웨스트뱅크에서 주어졌으며, 성도들이 나무를 떠난 지 거의 일년이 지난 후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책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장애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손을 뺀채 올라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해주는 축복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럴던 피고트 골딩

그 두 젊은 여성이 우리 가족의 생애에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영향력을 준 것은 28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는 텍사스에 있는 한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인생은 평온했다. 나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으며, 성가대 역원이었고, 주일학교 교사였으며, 기독교 봉사 조직에서도 활동적이었다. 나는 교회 회원들과 이웃을 매우 사랑했다. 우리는 작은 집을 샀으며, 사랑스러운 자녀가 넷이 있었고, 큰 애가 열 살이었으며 막내는 생후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부엌 창문을 통해 그 구간의 끝과 길 맞은 편을 볼 수 있었고,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그쪽으로 쏠리게 했고,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창문을 내다보고 그 건축 진전 상태를 지켜 보았다. 우리 이웃들도 호기심을 갖게 됐으며, 우리는 그것이 물론 교회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당황했다. 나는 물론이 우리 나라의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몇 개월이 지났다. 한쪽 모퉁이에 있는 그 작은 교회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작았지만 분홍색 돌로 우아하게 지어졌다. 나는 긴 치마나 이상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나는 그 회원들이 우리와 똑같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좀 실망했다.

어느 날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저기에는 단정하게 복장을 한 두 젊은 여성이 있었다. 나는 정중하게 그들을

집 안으로 맞아드렸으며 선량한 텍사스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듯이 예의바르게 커피 한 잔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사양했으며, 우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전에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있으며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했다. 상상해 보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보인다니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 같았다. 나는 문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당신들은 훌륭한 젊은 여성들이지만 틀림없이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 교회가 당신들을 잘못 인도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믿고 있군요.”

그 다음 주 거의 같은 시간에 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이번에도 바로 그 여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맞아들이고 커피를 권했으나 그들은 다시 정중하게 사양했다. 또 토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문에서 헤어졌다. 이번에는 그들이 현대의 예언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가 있어서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겠군요.” 그들은 그렇다고 확신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게 이 교회는 그런 것을 그렇게 강하게 믿도록 만들까?”

또 한 번 만났다. “정말 우리와 커피 한 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아니요. 감사하지만 못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놀랍게도 내

나는 부엌 창문을 통해 도로 저쪽에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물론 교회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그 토론을 들었다.

우리는 매주 더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남편과 나에게 온갖 것을 이야기했다. 느부갓네살왕의 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 이야기, 예레미야의 예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 등을 이야기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전에도 읽은 적이 있었다. 나는



성경을 사랑했으며 성경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사랑했다. 나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한 장을 읽었으며 그 젊은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일부는 낯익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이 무렵, 우리 자녀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했으며 처음에 우리 문을 두드렸던 그 두 자매는 또 다른 한 쌍의 자매 선교사와 교체되었다. 나는 아기를 요람에 눕히고 선교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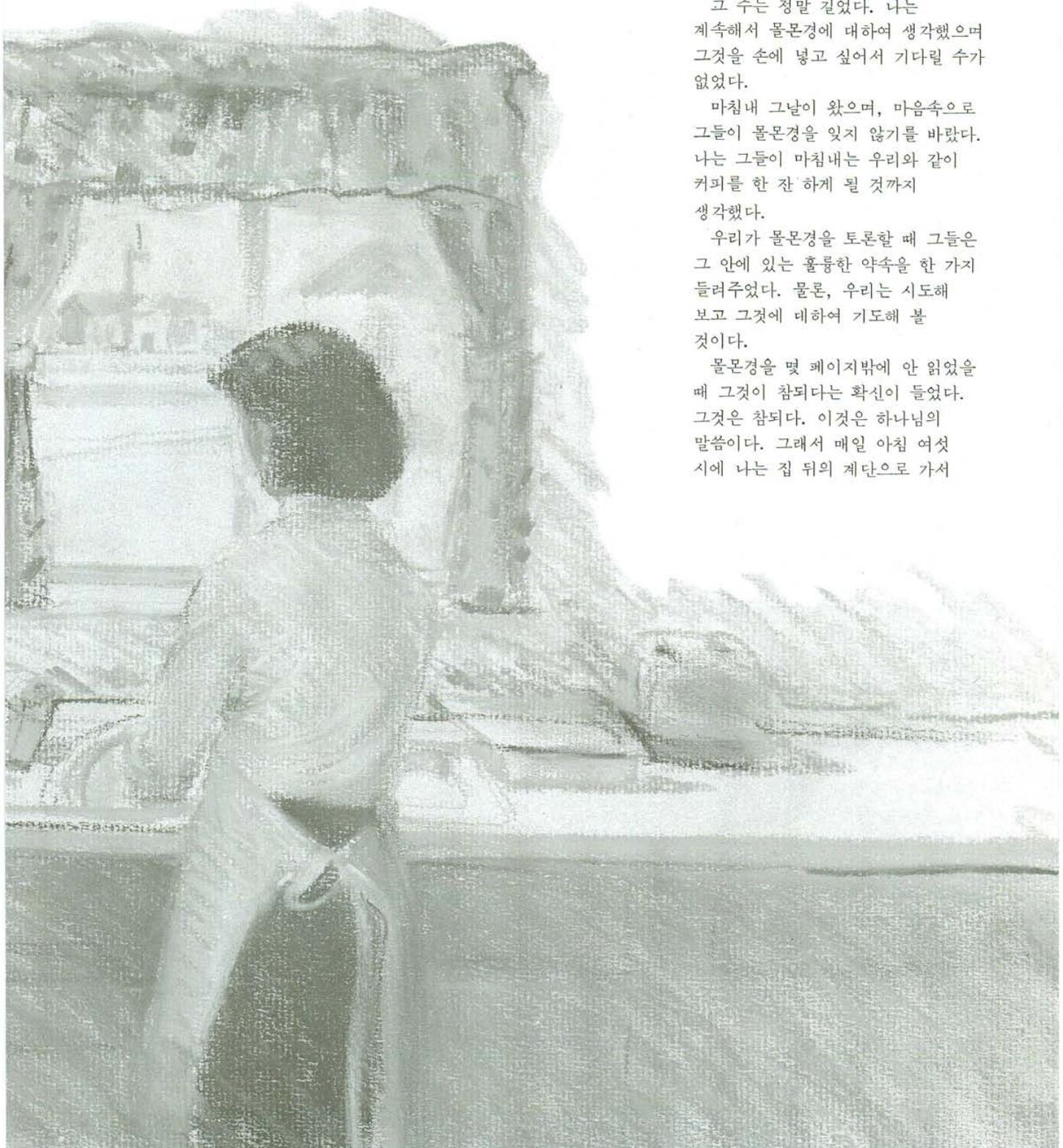
우리는 예언에서 이야기한 두 막대기가 성경과 물몬경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물몬경을 보게 됩니까? 언제지요? 내가 언제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다음 토론 시간인가요?” 이번 주는 상당히 긴 주가 될 것이다. 나는 기다리기에 조바심이 났다.

그 주는 정말 길었다. 나는 계속해서 물몬경에 대하여 생각했으며 그것을 손에 넣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으며, 마음속으로 그들이 물몬경을 잊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그들이 마침내는 우리와 같이 커피를 한 잔 하게 될 것까지 생각했다.

우리가 물몬경을 토론할 때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훌륭한 약속을 한 가지 들려주었다. 물론, 우리는 시도해 보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해 볼 것이다.

물몬경을 몇 페이지밖에 안 읽었을 때 그것이 참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참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여섯 시에 나는 집 뒤의 계단으로 가서



시원한 아침 공기 속에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이 일어날 때까지 물문경을 읽곤 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었는지 모른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나 흥분되고 새로운 발견이고 경외심과 따뜻함과 경이감에 찬 느낌인지 모른다.

우리는 아직 최소한 세 토론이 더 남아 있을 때 중단하게 되었다. 우리의 네 살 된 딸인 낸시가 소아마비같이 보이는 병에 걸렸다. 나는 여전히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당시의 나의 교회에서 한 반을 맡아 가르치고 있었으나 그날 아침은 주일학교 반에서 가르치는 대신에 서둘러서 낸시가 그 지방 병원에서 척수를 뽑아 낼 준비를 하게 했다. 우리의 추측이 맞았으며 낸시는 소아마비에 걸린 것이다. 우리는 낸시를 휴스톤에 있는 아동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나는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물문경을 가지고 갔다. 어떻게 해서인지 나는 낸시가 무사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낸시는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나는 나의 새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다시 선교사 토론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 모임에서 마침내 우리는 왜 선교사들이 커피를 한 잔 하겠느냐고 물을 때마다 계속 거절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이 커피, 차, 술, 담배를 금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춤도 추지 않고, 극장에 가지도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많은 것을 안한다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나 나는 그들이 부탁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미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우리가 토론을 끝낼 때가 거의 다 되어 왔으며 구원의 계획을 배우고 있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했으며, 그가 나를 아시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듣고 느낀 그 기쁨은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나를 아신다는 말씀인가요? 나를요?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 나는 너무나 기뻐서 울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했으며, 그가 개인적으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들어 본 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말씀이었다. 이제 나는 쉽사리 그분을 친절하신 아버지요, 살과 뼈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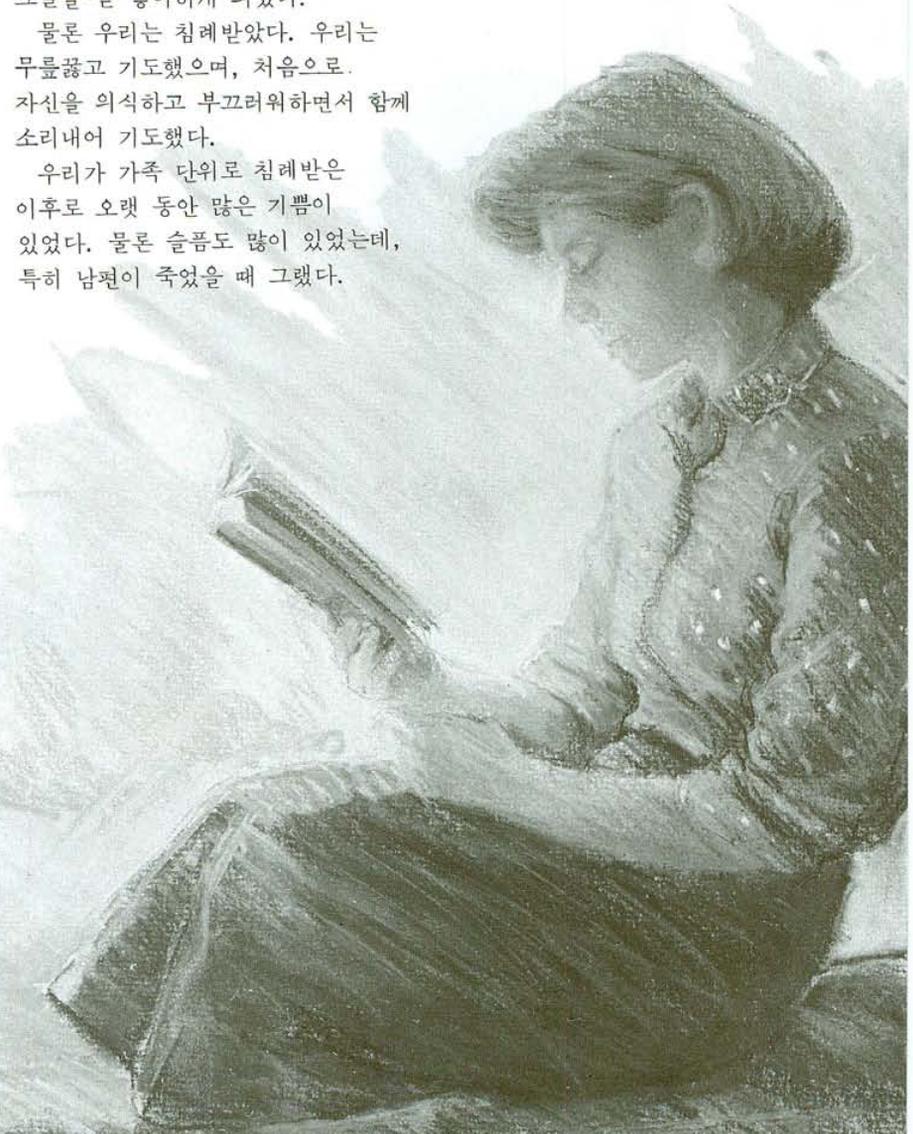
우리에게 장로들을 소개해 주었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뻐했다. 그 자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신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으며, 나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경외심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장 큰 존중심을 느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그들을 곧 좋아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침례받았다. 우리는 무릎꿇고 기도했으며, 처음으로 자신을 의식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했다.

우리가 가족 단위로 침례받은 이후로 오랫동안 많은 기쁨이 있었다. 물론 슬픔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남편이 죽었을 때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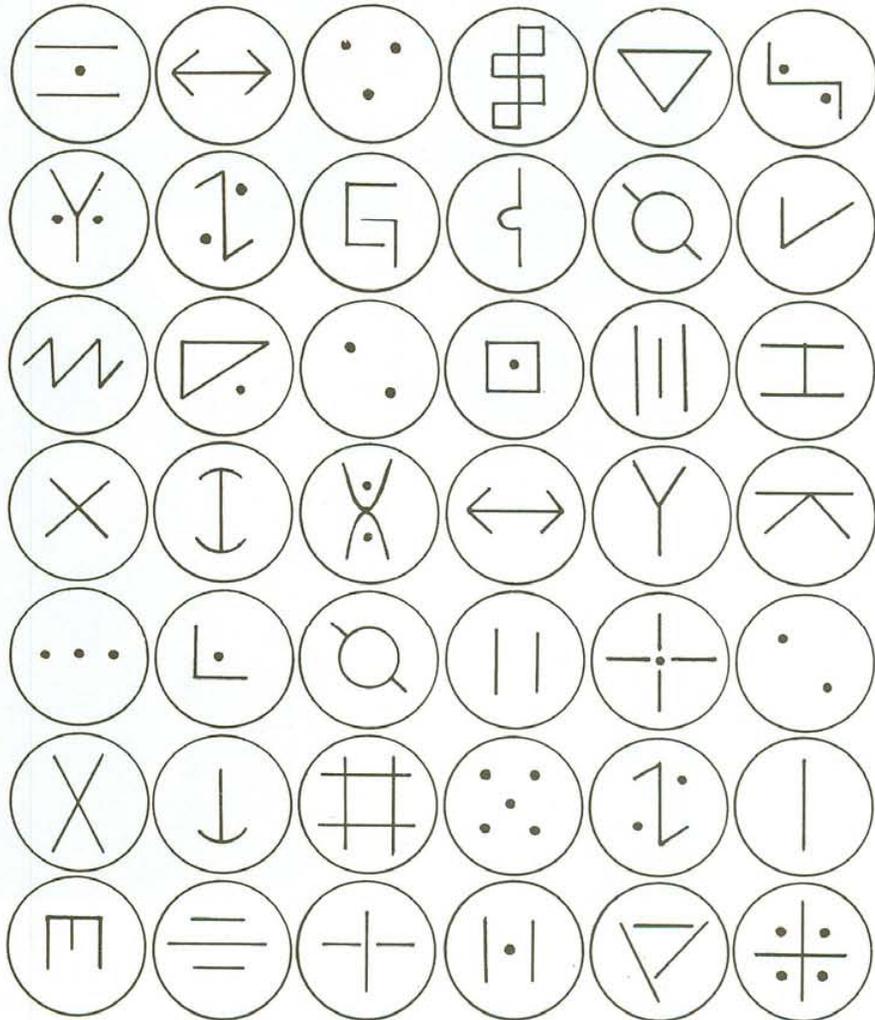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신권에 의한 안도와 가정 복음 교사의 위안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웃고 노래하고 울었으며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높은 영적인 상태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우리는 성전 결혼의 기쁨과 영원한 우정의 의미와 모든 것이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을 때 쇠막대의 힘을 경험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 것과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준 선교사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들 데이비드를 선교사로 보냈다.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영혼을 찾아내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기쁨과 행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



동그라미 맞추기

똑같은 동그라미
네 개를 찾아 보세요.
콜린페이



침례 요한

쥬디 스테판 스미스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제단에서 향을 피우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의 큰 특권이였다.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했다. 수백년 동안 유대인들은 기도했으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누구도 그가 언제 오실지

분명히 알지 못했다.

사가랴가 이 임무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앞에 서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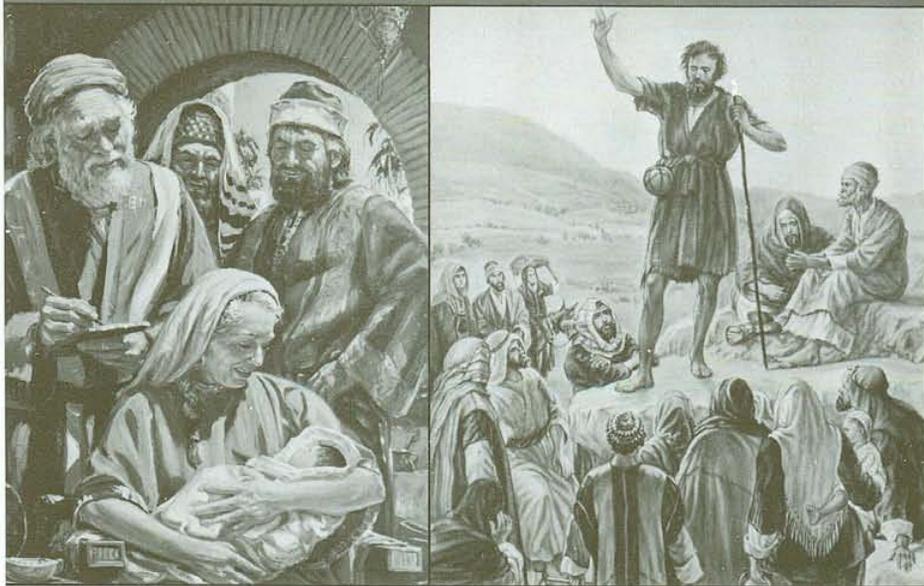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사가랴는 그 천사로부터 이런 기쁜 말씀을 들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눅 1:13, 15, 17)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자기가 나이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 것인가.

구세주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했다. 당시 일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권력과 특권을 사랑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따랐으며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잊었으며 왜 그것이 주어졌는지, 즉 그것은 구세주의 오심을 대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한 새로운 선지자에 관한 소식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대단히 걱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가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많은 무리가 이 새로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모인 것을 보았다. 요한은

평강한 권세와 용기를 가지고 말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도록 촉구했다. 백성들이 귀기울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개심하고 침례받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들었으며 요한의 옷차림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가 입은 옷은 부드럽고 치렁치렁한 의복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낙타의 털과 가죽으로 만들어져 사막에서 오랫동안 야외 생활을 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었다.

요한이 이 지도자들을 자신에게 끌어오기를 원했다 해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는 단순한 말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또한 언제 예수가 오실 것이며, 그들은 물로써 뿐만 아니라 성신으로 침례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말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 그

파견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러 갔다.

그 다음날 요한이 요단강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오셔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다. 요한은 자신이 그를 침례주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꼈으나 부탁받은 대로 행하였으며 예수를 물로 인도했다. 침례가 끝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요한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마 3:16)와서 자기가 침례드린 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었으나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한 것이다. 그들은 침례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것처럼 주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요한은 예수를 보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요한은 아론 신권에 속한 자신의 부름과 권능을 존중했다. 이 위대한 선지자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다. 그는 그들이 구세주를 따름으로써 성신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프로비던스 리도그래프사 허가를 받아 그림.

해리 앤더슨 (그림)



피리부는 사람

조이스 디 베일리

망코는 무릎을 잔뜩 웅크리고
뽀족하게 짠 모자를 귀 위로
단단히 잡아당기며 추위를 막아
보려고 애썼다. 그의 밝은 색감의
비옷이 그의 몸을 감싸주어
다행이었다. 바위로 뒤덮인 계곡으로
강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눈보라가 휘날렸다.

망코는 조바심을 내며 몸을
흔들었다. 그는, *아빠는 언제*

오시지? 하고 생각했다. 바로 오늘 오실거라고 내게 약속하셨는데, 소년은 뺏뺏해진 손가락으로 오늘 아침에 허리 띠에 졸라맨 대나무 피리를 만져 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넓고 바람에 주름이 잡힌 입 언저리로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애야, 너 주려고 아빠가 이 피리를 만들었다. 오늘은 피리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망코는 아버지가 한 말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피리를 가장 잘 부는 튜팩크였다.

망코는 자기 가족의 라마와 알파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 하나 조심해서 살펴 보았다. 가족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비웃 안에서 피리를 꺼냈다.

아버지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들의 집안의 밭짓는 붓가에 앉아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작은 손가락 구멍과 물부리를 새겼다. 그는 가족과 함께 그 험준한 산에서 옥수수과 감자를 키웠으며 아들 망코와 함께 매일 그들의 적은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다.

망코는 잘 다듬어진 피리를 입으로 가져 갔다. 그는 아버지가 내는 소리와 같은 가냘픈 소리를 바스락거리는 대기속으로 내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께서 돌아오셔서 그것을 올바르게 하는 방식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언젠가 나는 케루에서 제일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될꺼야. 언젠가는 내 손가락이 작은 구멍 위로 나르듯이 움직이며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잔물결 소리를 내며 피리를 불거야.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아빠가 영의 세계로 불러 간 신치를 위해서 피리를 불었을 때 여자들이 눈물을 흘린 것처럼 내가 이 피리로 애도곡을 불면 다른 여자들도 울거야.

갑자기 망코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자기 머리 뒷쪽의 흰 산봉우리로 작고 검은 반점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점이 점점 커짐에 따라 아버지의 밝은 붉은 색 모자가 흰 눈에 반사되며, 아버지가 칼날같은 겨울 바람을 막으려고 머리를 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강한 바람에 밀려 봉우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몹시 애를 썼다.

소년은 재빨리 산 허리를 살펴보았다. 어린 가족 동물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왜 미리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그는 왜 아버지가 산 기슭을

내려오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잃어 버린 라미 새끼가 아버지의 따뜻한 비웃 속으로 머리를 쭈셔박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의 다리가 꼬였다. 아버지는 눈 덮인 산 허리에서 꼼짝 못하게 된 것이다. 눈이 검은스레한 아버지의 모습 위로 굴러 내렸으며 더 이상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망코는 산 등성을 구분하고 있는 바위 많은 계곡을 향해 달려 내려갔다.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다시 아버지가 눈에 파묻힌 곳까지 오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망코는 구조를 요청하려 갈 것을 생각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누구든 바로 지금 필요했으며, 거기에는 망코밖에 아무도 없었다.

그 소년이 마침내 눈덮인 곳에 도착했을 때는 팔과 다리가 마치 목석같이 되었다. 손에는 피가 나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따가운 땀방울과 눈물로 별경계 충혈되었다. 그는 아버지만 찾아 낼 수 있다면 두 번 다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망코는 자기 앞에 있는 눈덩이와 쓰레기 더미 사이를 마구 헤쳐 보았으나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잠시 있으려니, 자신의 혈떡이는 숨소리 위로 작은 신음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즉시 조금 더 높이 기어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갔다. 그는 크고 울퉁불퉁한 눈덩이가 조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빠세요.”

소년은 맨손으로 눈을 파헤쳤다. 먼저 그는 라마 새끼를 찾아 내었으며, 그 라마는 몸이 자유롭게

되자마자 목축 메를 향하여
 절름거리며 달려갔다. 그리고 나서
 망코는 급히 파헤쳐서 아버지의 팔을
 그 다음에는 어깨와 그 다음에는
 모자를 쓴 아버지의 머리를 찾아
 내었다. 아버지의 얼굴 색이 이상하게
 보였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아빠, 제 말이 들리세요?”

아빠의 눈꺼풀이 가볍게 떨리더니
 다시 감겼다. 긴장과 고통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망코는 아버지의 힘없는 사지로부터
 눈을 파헤쳤다. 그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다. 이
 봉우리 조금 위에 은신처가 하나
 있어. 그것은 자빠진 나무 등치와
 가지로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
 조금 더 따뜻하며 바람도 불지
 않을거야.

망코가 아버지를 일으켜 앉히려
 애쓰자 아버지는 정신이 들어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며 이렇게 말했다. “망코야, 네가
 도와 주면 내가 그 은신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들이 그 봉우리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저녁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
 은신처에 거의 다 왔을 때, 아버지가
 땅에 털석 넘어지셨다. 고통과 힘을
 다 써 버려 기력이 쇠진한 것이다.
 망코는 그 나머지 거리를 아버지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망코는 급하게 나뭇 가지로 만든
 자리에 아버지를 눕혔다. 그리고 자기
 비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덮어 드렸다.
 그리고는 즉시 아버지 옆에 자리를
 만들어 작은 불을 피워 놓고 도움을
 받으려 달려갔다.

망코는 곧 여러 아저씨들을
 만났으며, 그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서
 아버지를 업어 왔다. 소년의 어머니와
 누이인 코라가 아버지를 정성껏
 치료하고 그의 상처를 닦고 붕대로
 감아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수프를 끓여 드리고 약을 먹였다.
 망코는 아버지가 긴장을 풀고 잠에
 빠져 들 때까지 걱정스럽게 지켜

보았다. 그러다가 소년도 지쳐서 자기
 침대로 갔다.

그 다음날, 그는 아침 늦게 눈을
 떴다. 그의 아버지는 아직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기분이 훨씬
 나아져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예, 아빠.”

“가축은 모두 안전하냐?”

“아니예요, 아빠. 내가 가축을 산에
 두고 내려왔어요.”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야. 가서
 가축을 모아서 돌보아 주려무나. 자,
 가거라.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되시기
 바란다.”

망코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이제 그가 “이 집의 가장이라니.”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은 바로 자기가
 부주의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망코가 왜 주저하는지 아셨지만

그래도 그는 실수한 아들을
 가장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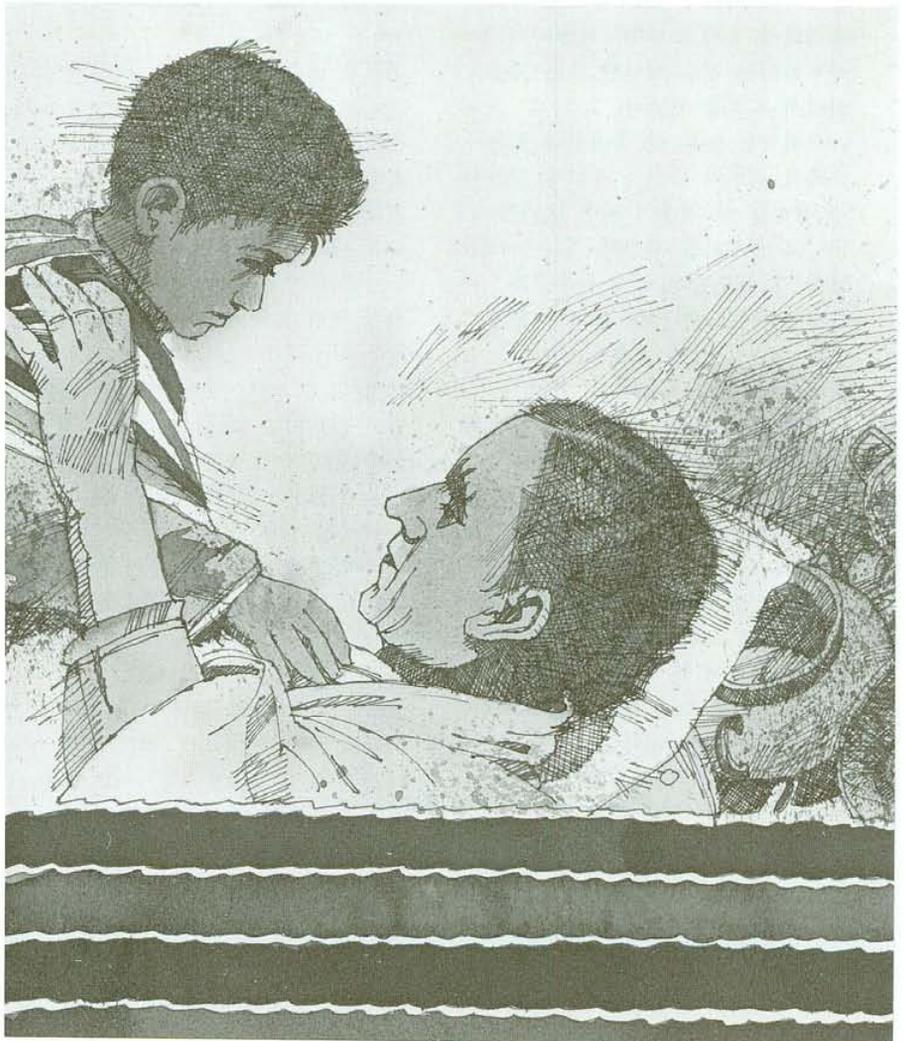
소년은 갑자기 눈이 쓰렸다. 그는
 감사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겠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였다.

망코는 갑자기 키가 더 커지고
 나이가 더 많아진 느낌으로 일어섰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혼자서 가축을 돌볼
 것이다. 망코는 자기 비옷을 걸쳐
 입고 귀 위로 모자를 당겨 쓰고
 도끼로 찍어서 만든 울퉁불퉁한 문을
 향해 달려갔다.

아버지가 몸을 조금 일으키시며
 “애야?” 라고 말했다.

“예, 아빠.”

“네가 돌아오면 베루에서 가장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줄게.” *



가족 야간 발견

수잔 에스 딘

이런 사람을 찾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 보세요. 훌륭한 짝	이런 사람을 찾아 보세요. 농담을 잘함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보세요. 무용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보세요. 전화로 이야기하기
단정함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만들	열심히 일함	비밀 지키기	동물
남의 말을 잘 들어줌	기쁘게 해줌	질문을 잘함	노래	운동
나누기를 즐김	과자 만들기	질문에 대답을 잘함	자전거 타기	독서
창조적임	미소짓게 함	절대 화내지 않음	약기	아이스크림

가정의 밤이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 놀이를 해봅시다. 모든 경기자에게는 말로 사용할 스물 다섯 개의 콩이나 자갈이나 단추를 필요로 합니다. 경기자에게 하나씩 나누어 줄 놀이판을 만듭니다. 각자 모든 경기자의 이름을 최소한도 한 번씩 사용하여 그 안에서 설명하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경기자의 이름을 각 네모 안에 적어 봅시다.

1. 각기 다른 종이에 경기자의 이름을 쓰고 그 종이를 접어서

종이 상자에 집어 넣습니다.
2. 한 사람에게 그 상자에서 이름을 하나 꺼내어 읽게 합니다. 그러면 경기자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는 네모 칸에 말을 하나 놓습니다. 만일 그 이름이 놀이판에서 한 번 이상 나타나면 여러분이 선택한 네모 안에 말을 놓습니다. 일단 말을 놓은 다음에는 다른 네모 칸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3. 이름을 상자에서 꺼냈으면 반드시

도로 집어 넣습니다.
4. 누구든지 말 다섯 개를 한 줄로 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상자에서 이름을 꺼냅니다. 게임을 좀 오래 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놀이판에 있는 네모를 다 채워 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5. 놀이판을 다른 경기자와 바꾸어서 다시 게임을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각 설명문에 대해서 자신이 택한 이름을 읽어 줄 수도 있습니다.

